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社『朝光』(月一回發行) 同『女性』(上同) 同『少年』(上同)

옴 피부병 하이벡고 靑山膏

我海軍有力部隊 連雲港에上陸

空軍掩護下에敵軍을掃蕩

隴海線의起點

【上海廿一日發同盟】艦隊報道部 二十一日午前發表 我海軍有力部隊는 作戰必要上 連雲港에 敵前上陸을敢行、이를 占領하엿다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 二十一日午後一時四十分公表 我有力部隊는 五月二十日午前 艦艇飛行機 掩護下에 東連島連雲港에 敵前上陸을 敢行하야 陣地에 依據抵抗하는 敵을 驅逐하고 저녁때까지에 同地域 一帶를 占領하엿다 今日繼續하야 殘敵을 掃蕩中이고 我損害는 極히輕微하다

歸德、洪澤湖附近서 敵集團部隊爆擊

我海軍航空隊의猛活躍

【上海二十一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昨二十日我海軍航空隊는 隴海線方面의 陸軍作戰에 協力하야 左記攻擊을하엿다

一、柵町少佐가 引率한 三十數機는 歸德附近의 敵集團部隊를 爆擊하야 歸德驛附近及附近多數의 村落에 依據한敵集團部隊에 殲滅的打擊을 주엇다

一、洪澤湖及그西北地區에서의敵移動部隊及集團部隊에 對하야 數機로編成한 十數群으로써 終日反復爆擊을하엿다 이方面의敵은 多數의 쟝크를 利用하야 移動하는바 그쟝크에 爆擊을敢行하엿다

一、擊沈된것이 百數十隻에 達하며 또附近村落의敵에 多大한損害를주엇다

支那機撒布한 反戰삐라種類

【宮崎電話同盟】支那飛行機의反戰삐라 撒布에關하야 宮崎縣警察部에서는 二十一日午前十一時 如左히發表하엿다

二十日午前四時지나 支那飛行機一臺가 本縣西北方의 山岳地帶及海岸上空에 相當히 高度로飛來하야 機上으로부터如左한삐라를 撒布하고 少數撒布하고 洋上方面에 姿態를감추엇스나 何等被害는업고 삐라는全部 本縣警察部에 入手하엿다 삐라의種類는 如左하다

日本農民大衆에告함 中華民國農民協會
日本勞働者諸君에告함 中華民國總工會
日本商工業者에告함 中華民國總商會
日本各政黨人士에告함 中華民國外交協會

支那軍食水에 毒物을投入

【徐州二十一日發同盟】去九日我北進○○部隊의 蒙城占領以來敵은 普通手段으로서는 決河의 我北進勢力을 阻止할수업기때문에 遊擊隊 또는 土民을 使嗾하야 우물마다 모두 靑酸加里 其他毒物 또는 細菌을 投入케하야 百度를넘는 大陸의 炎天下를猛進擊하야 飮料水에 苦痛을맛는 皇軍將士를 鏖殺하려는 至極히 非人道的手段을 取하고잇서 이때문에 黃河南岸地帶의 砂漠과도가튼地域으로 北上作戰을行한 我軍은 全혀飮料水難에빠저 겨우休息時間을 利用하야 決死隊를編成하야 水利地點까지 물을求하여다가 이를全軍에配給하고잇는 形便으로 將兵의困苦는 全혀形言키에어려운現狀이다 支那軍의 非人道行爲는 只今에 비롯한것이아니나 너무도 程度를지나친 惡質의 手段에軍當局은 크게憤慨하야 實證을들어 一般의輿論을 喚起할豫定이다

依知川少佐 南下○○部隊長訪問

【徐州二十日發同盟】徐州를向하야 南北으로進擊한 ○○、○○兩部隊先頭는 去十六日 隴海線在閣에서 握手하엿는데 徐州에서는 十九日午後八時北進軍을 代表하야 依知川康治少佐는 同日夕刻 徐州停車場에 進出한 南下軍○○部隊長을 訪問人事를하야 이에 歷史的南北攻略軍의握手가 完成되엿다 會見席上依知川少佐는『北進部隊의 徐州攻略은 南下軍의協力에 힘입음이만헛다』고 感謝한데對하야 ○○部隊長은 北進部隊의 神速果敢한行動을 激賞、劇的情景을 演出하엿다

徐州陷落을 敵軍事當局是認

【上海二十一日發同盟】支那側軍事最高當局이 難攻不落을 豪語하든徐州의 陣地도 日本軍에依하야 徐地의 陷落된것이 蔣介石의 大本營에 精神的으로極히重大한 影響을주어 大軍의守備도 何等信賴할것이 못됨을알고昨日까지도 大言壯語하든나今日은 갑작이 徐州陷落을 認定하고 左와 如히말하엿다

支那軍은 次期戰의 戰略上徐州가 이미 死守의價値가 업게되엿스므로 不必要한 犧牲을避하기爲하야 命을奉하야 十九日徐州를 退却 支那軍은 適當한時期에 後退를하야 抵抗을繼續한다

但一般國民은 數個月에 亘하야 徐州準備에關한 國民政府의 宣傳에 속아오든터이라 너무도 脆弱한 敗戰에 새삼스러히國民政府의 無力함에 失望하고잇다

珠蘭南方山岳地帶 敵軍數十萬을追擊

【○○發同盟】珠蘭附近에 敗走集結한 敵約十數萬은 我海陸空部隊와 地上部隊의猛擊에 견되지못하야 血路를열고 二十日午後三時頃 珠蘭南方의 山岳地帶인 高古山、霸山、朝山、尖山、狼山、打擂山等의 山地에 敗走하야 다시 西方永城附近에 逃亡하려는形勢임으로 ○○部隊는 迂廻하야 敵의退路를遮斷하고 又宿縣을 發한淡面의 奇襲部隊는 西北方으로 또北支南下軍○○部隊는 東方으로 各各이를包圍하야 그들敵을捕捉殲滅코저하고잇다

支空軍大阪空襲을 漢口政府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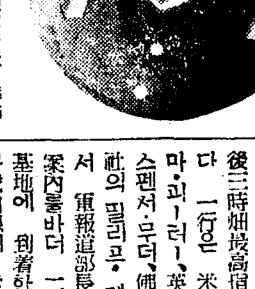
支那人조차內容을不信

【北京二十日發同盟】漢口政府는 徐州陷落으로할미암아 民心이離反될것을두려워하야 種種의 떼마放送을하고잇는데 二十日漢口軍當局은 今番事變最初의日本空襲을敢行、九州瀨戶內海를 經하야 大阪을空襲、삐라를撒布하고 全機無事歸還하엿다고 發表하야 徐州包圍線의事實을 欺瞞하려고 하고잇는데 針小棒大的報道에는 支那人조차 信用하지안는다

北中支連絡完成은 蔣政權의重大威脅

國民黨內의軋轢深刻化

【上海二十日發同盟】徐州陷落은 軍事的으로는 敵이 今次會戰의 希望을부처든〝蔣介石〞라인의 國防的價値를 全혀喪失케하야 敗戰意識을 濃厚케하엿슴에 反하야 我軍은 津浦線에서의 南北兩線의 交通連絡이 完成되여이에 北支中支或은 蒙疆地方까지도 一體로하는 一元的用兵作戰을 꾀할수잇게되엿슬뿐만아니라 黃河流域確保에 依하야 今後는 十二分의 實力을 發揮하야 河北、綏遠方面의 敵遊擊戰術의 側面을 脅威할 絶對有利한條件을 具備하야 漢口에 對하야 直接脅威를 加하는 態勢를 整備함에이르럿다 다시 이것을政治的觀點으로보아도 支那更生의道는 北京、南京、上海의 樞軸을貫流하야 이에 北支五省及中支三省은 事變以來 처음으로地域的으로 結合되게되므로 臨時、維新兩政權의 合流實現은 顯著히 促進되여 一國政府의理想을 向하야 本格的協議가 進捗되리라고觀測된다 이에反하야 國民政府의 自壞作用은 加速度的으로 進展할것으로 國民黨은 從來 陳誠等을首領으로하는 黨內 急進分子에依하야 리ー드되여오든바 今後는 漸次蔣介石의 腹臣이라할만한 陳立夫、陳果夫等의 ○○團 藍衣社 黃埔軍官學校閥 或은 汪精衛를 中心으로한 和平派가 擡頭할것인바 따라서 이들의 對立軋轢이 深刻化하야 一方 國民政府內에 잇서서의 共產勢力의增大 國民政府 自體의 左翼化에 拍車를 加하야 國民政府의 自壞作用에 依한沒落을 招來할것으로 이미 自壞作用은 沒落의運命에 瀕하고잇다고 解釋된다 다시 經濟上으로 보아도 黃河流域의 產業經濟價値의 重大性으로 미루어 奧地政權에의 打擊은 ...이며 將來의 進展及 自己需要에 伴한 戰時의 經濟活動은 急速度로의 萎縮으로 復歸할것인바 다시 나아가 幣制統一의 據點도 顯著히 促進될것이다 다음第三國에의 影響으로 서 考慮되는것은 我赫赫한戰果의 現實을아는 노코 支那의 惡質한 反日的對外信用을 失墜케하야 日本의 實力은 全世界의 耳目에 牢固한認識을 주어슬것이다 第三國은 今後益益 新興支那政權의 實力을是認치아니치 못하야 立場에서 하게되엿스므로 今後國民政府의 戰鬪力減退、地方政權에의 離反에 伴하야 對支態度의 自己反省에 特히 英國이 어떠한 機會에 現實外交의 本領을 發揮하야 旣存 八十度의 轉換을 演하야 百 權益의 保有와 新權益을 獲得하려고 日本이 支那에서 차지한地位를是認하고 新興支那政權을 承認하게될것은 豫想키어렵지 아니하니 이러케 보면 徐州陷落의意義는 極히重大한것으로 今後 日支關係에 對하야 軍事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飛躍的情勢의 展開를보일것이다



畑最高指揮官 外人記者團과會見

蔣政權積極打倒를力說

【○○基地二十日同盟特派員發】支那側의데마放送에 실증이나서 今次事變의眞相을 自己의눈으로 보며 또는듯고저 外國新聞記者 通信記者二名이 我軍의特別許可를어더가지고 我軍의最前線을 視察途上○○基地에들러 二十日午後三時畑最高指揮官을 訪問하엿다 一行은 米國AP通信社의일마·피ー터ー、英國로이텔通信社의 스펜서·무더、佛國푸지파리산新聞社의 필리프·메자리에의 三氏로서 軍報道部長木村大佐外二名의 案內를바더 二十日午後二時○○基地에 到着한바 外國新聞記者가 我前線에 從軍한것은 最初의 일이다

綠葉에싸힌 서늘한 畑最高指揮官의 房으로 案內를바든一行은 畑最高指揮官에게 敬意를 表한後 堀口同盟通信社記者의 通譯으로 二、三質問이 잇섯는바 이에 對하야 畑最高指揮官은 記者團에게 閣下에게 付託할것은 아무것도업다다못 본그대로 實相그대로 써주길바란다 日本은正正堂堂히싸우고잇스니까 特히그點을 留意하기바란다 그리고 參謀長及○○參謀가戰況을說明한後 徐州會戰을가지고 最後的인것가티 觀察하는見解도 잇스나 이觀測은 全혀意外이다 이會戰은 蔣政權打倒의 一段階에 不過하며 이것으로써 蔣政權打倒를 一層容易케하려고 努力하고 잇는터이다 我等으로서도 當然 다음段階로邁進하고저 準備하고잇다 徐州에蟠居한敵에對하야 我方은 殲滅戰計畫을세운바 그結果大體成功하엿다 徐州會戰은 단넨베르히及 奉天大會戰보다 一層大規模의것이오 보다더完全한것이다 라고 補足하엿다 外國新聞記者團으로부터 今後漢口를 攻略하는것과 廣東을 攻擊하는것은 어느편이더效果的이냐는 質問에 對하야 畑最高指揮官은 苦笑하면서 그것은政治問題이라하야對答을 避하고 和氣靄靄裡에 記者團과의會見을마치엇다(寫眞은畑最高指揮官)

中樞院會議終了

中樞院會議第二日은二十一日午前八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催、前日에繼續하야 各參議로부터 諮問에 對한 答申意見陳述이잇슨後 同十一時閉會하엿다 會議出席者一同은 其後即時朝鮮神宮에서 擧行하는 徐州陷落奉告祭에 參列하엿다

少年朝鮮日報今日發行

國境軍隊移動說 獨外務當局否認

헨英大使問議에對하야

【伯林廿日發同盟】체코少數民族問題를 中心으로 中歐의情勢가 緊迫化하엿다고하는此際 最近獨逸國境方面에 軍隊移動이잇다는 風說이傳하야 一般의注目을 끌고잇다 獨逸英國大使 헨더슨氏는 二十日午後 獨逸外務省을訪問하고 리벤트로프外相不在로西歐局長 폰·와제카氏와 會見하고 右風說의 眞僞를 明瞭히하엿다 席上에서 헨더슨大使는 如斯한 風說이 歐洲政局에與하는 影響의 重大性을 指摘하고 獨逸政府의說明을 求하엿는바 와제카局長은 最近獨逸國內에서 右風說이傳하는바와가튼 軍隊의 移動은 업다고 回答한模樣이다 確聞하건댄 와제카局長은 카이텔國防軍總司令에對하야 獨逸國軍最近의 動向을 聽取하엿든바 카이텔將軍은 何等異常한 國防軍의 移動은 이업고 오직一部地方軍의 定期의野外演習에 不過하다는旨를 說明하엿다고 傳한다

徐州占領報道에 米政府는沈默

【華盛頓二十日發同盟】連續하는 日本軍의戰勝과 徐州占領은 連日米國新聞의 第一面을裝飾하고 잇스나 輿論은一般으로 冷靜하야 政府側에서도 一切批評을避하고沈默을직히고잇다 問題는今後日本軍의攻擊이 어느方面으로 向할지가不明하나一方米人間에서는 北支中支의 連絡이完成되매따라 門戶開放主義는 一層壓迫을 밧게되리라하야 列國의此에 對한 共同戰線의必要를 主張하는議論이 再次擡頭하고잇다 그러나 政府側에서는이에 動搖됨이업시 依然靜觀的態度를取하고잇다

政友會顧問會議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總裁繼任問題를 協議할 顧問會議는 二十日午後六時부터 芝紅葉館에서 開催 濱田、名川、牧野(良)熊谷、小久保、東、安藤等二十一顧問出席、小久保氏를議長에 推薦協議한바에 옴겨濱田氏로부터 刻下非常時局에 際會하야 天下의 公黨으로서 上天業에翼贊하고 下國民의 付託에副하기爲하야總裁를 選任하야黨一致時艱克服에 邁進코저 今日擧黨의 輿望에 鑑하야 速히後任總裁를 決定하도록 適切한方法을 考究하기爲하야 顧問의 參集을 願한것이다 라고 會合의主旨를 述하야 種種意見을 交換한結果『速히總裁를 決定하기를 望한』이라는決定을하야 小久保氏는 同夜의 模樣을 砂田幹事長에 報告키로 되엿다 來二十三日正午芝三緣亭의 代行委員과 總務와의 懇談會에 全顧問 出席 右決定의 主旨를 進言키로하고 同八時二十分散會하엿다 그리고 總裁問題에 對한 代行委員等의 意向은 只今暫間 時期를보든後 態度를決할것이라는 態度를 取하고잇스므로 公選其他의 方法에依하야 總裁의即時決定은 到底히 困難하다고보고잇는데 顧問의要望은 來二十五、六兩日開催되는 支部長會議에서 總裁決定의 要求와呼應하야 代行委員의 總裁決定에 對한 考慮를促進식히자는 模樣이다

時事解說

所謂蔣介石線과徐州의陷落

今次事變勃發以來 彼我間에 最大의 歷史的大會戰이 豫想되던 徐州攻防戰도 支那軍主力의 總退却으로 金城鐵壁을 自矜하던 堅壘徐州城은 너무도 맥업시 攻落되고말엇거니와 蔣介石이 滿洲事變以後 이미 對日戰爭을 想定하고 隴海線을 國防第二線으로前後七年間에亘하야 莫大한經費를던저 堅固한 抗日陣 即所謂蔣介石라인을 構築하야 强大한抗戰的施設을 豫備하고 잇섯던것은 이미周知의 事實이다

◇

蔣介石이 國防計畫을 立案할때 隴海線을 國防第二線으로한것은 이一線이 北、中支那를 區分하는同時에徐州에서 津浦線이 鄭州에서 京漢線이 潼關에서 同蒲線이 各其連絡交叉되는 交通上의 生命線이될뿐만아니라 漢口防衛에 最大有力據點이 되며 國共合作이 實現된後에 鄭州를 起點으로한 콤인테른루트가 活氣를띄게되자 이 國防線의 軍事的意義가 一層加重되엿든때문이다

◇

所謂蔣介石라인上에는 隴海線東端을 起點으로 連雲港、海州、徐州、碭山、歸德開封、鄭州、洛陽、潼關及西安等의 諸都市가 重要國防據點으로되여잇던바 個中最重要據點인 徐州의陷落은 軍事的、政治的、또는國際的으로보아 劃期的結果를招來하게되엿다(一)北支、中支의 臨時維新兩政府가 合流統一의 機運을 促進하게된것 (二)北支大陸을縱貫하는 津浦及京漢의 二大動脈을 切斷된것 (三)東部支那本土로부터 完全히 넘어오게 한 蔣政權의 致命的打擊과 및 그窮境相을 볼수가잇스니 徐州會戰이 이미第二段階에 들어간오늘에잇서 蔣介石及 國民黨과 및 第三國의今後動向이 果然如何할른지 吾人의關心은 오로지 이에集中되고잇다。

辭令

中樞院參議 朴相駿
命經學院大提學
命明倫學院評議會評議員
前中樞院參議 李軫植
命經學院司成
命明倫學院幹事

人事·集會

◆崔利補氏(本社經理部長)北阿峴町一番地의二五九號로移徙

八面鋒

徐州는 어덧스나 包圍는 終末을 짓지 안햇다고 畑最高指揮官 言明。

◇徐州會戰이 第二段階에 드러간것을 意味。

◇昨晩 九州地方에 怪飛行機가 나려와 不穩삐라를 撒布。

◇支那機가 帝國領土內에 와서 삐라를 뿌린 첫 記錄。

◇爆彈投下、삐라撒布、흉내는 다 내는군。

◇金津 理想鄕 不遠 實現化한다고。

◇一部落에 여러 作人이 共同耕作하야 元利를 갚아가되、十年乃至 二十年이면 各自 土地가 된다면 얼마나 조흔일?

◇當局의 自作農創定은 이저음 어찌 되엇나?

カメラと材料 岩瀨寫眞機店 釜山大倉町一 電話七五五·振替七五五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와 早漏에 百發百中!!

早漏防止 (淸腎補腎丸) 國境大藥房

和信萬年筆 專賣特許金付 品質保險證付 和信本支店·各地連鎖販賣店

自働으로洗濯되는 ランドリー 出現!! 明治商會

特等 白麥 五斗入一叺 金十圓也

海草精 淸血排毒强心特効藥 適應症

부인약 益母草엑기스錠

튼튼히 나어튼튼히길읍시다
강장한 자녀는 건강한 모체로부터
한모체는 익모초엑기스錠으로부터
益母草엑기스錠은 月經不順、帶下症、諸子宮病의 徹底的治療와 産前産後의 養生에 國際靈藥으로 確認된 古今唯一의婦人聖藥입니다 또男女를 不拘하고 神經衰弱、諸冷病、消化不良에 特効가잇습니다
前醫學專門學校教授 京城帝國大學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帶下症과子宮病에
産前産後 妊娠中
月經不順
特約店募集 本舖 株式會社 大盛堂藥房 代理店 京城 新井藥房 京城本町 木村藥房

世界的靈藥 淫羊藿엑기스錠
服藥하라면正當한學說과責任잇는團體의實驗證明한藥을求하시요
精力强壯劑의大王!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公開 (大阪朝日新聞報導轉載)
淫羊藿은 支那一部와 平北에서만 野生하는 貴重한藥草로 古來로부터 上流家庭에서 使用하든藥으로 特히 補精强壯劑로 驚異的効能을 發揮함은 一般醫學界에서 周知하든事實이든바 일즉이 石警察部長自身이 淫羊藿엑기스를 實驗한바 참으로 놀낼만한 特効잇슴을 證明하엿스므로 目下衛生課에서는(모르모트)와 家兎에게 淫羊藿엑기스를 與하야 實驗한結果 其効力이 驚異的으로 顯著함을證明함 補精强壯劑로 널리紹介하면 實驗한 効力에依하야 朝鮮人蔘을 壓倒할 時期가 不遠하리라思함(以上은 衛生課에言明)
第六回日本藥理學會에서發表한學說
主治適應症 前醫學專門學校教授 京城帝大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徐州陷落의祝賀一色

戰勝威武를祝福하는 歡呼聲、各地에爆發
旗行列、提燈行列等이 날을뜻깁게하는
今日全朝鮮祝賀行事盛觀

전세계를 진감식히는 황군의 위무전승(威武戰勝)을 축복하는 서주(徐州)함락축하행사는 초하의훈풍이나부끼는 이십일일전조선방방곡곡에서 환희의 폭발로되여 일제히 실시되엿다 이날 정오를기하야 전조선 각지에서 『싸이렌』기적 종소래가 울리자 전민중은 호국의 영령에대하야 경건한조의를 표하야 일분간의 묵도(默禱)를 바치엇다 또군사후원련맹을 비롯하야 총후의 제단체는 이날의 행사를 일층뜻깁게하기 위하야 신사참배를 비롯하야 백의의용사인군 출정군인 유가족의 위문등 장기전에 가주는 상응한행사가 시행되엿다 한편 기행렬의 물결은 전승의노래소리 노피멀치는 가운데 각도시를 모주리덥고 황군의위력에 만되의 환희를 보내여 장기전에 처한 경인지구의 각오를 한층더 새롭게하엿다 또 이날밤에는 축하제등행렬이 일제히 시행된다

이날! 街頭의壯觀
三萬名의旗行列
官民合同의大祝賀宴도盛況

이십일일오후령시반부터는경성부와 경성상공회의소주최로 조선신궁 봉찬전(奉讚殿)압 대광장에서 관민이천여명이 모혀서 관민합동 전첩대축하연을 성대하게 거행하엿다

오후 한시반부터는 부내초등학동과 중등이상의 여학생 삼만여명이 총동원되고 방호단、청년단、재향군인회、국방부인회등 제단체가 참가하야 총독부구내、일출(日出)소학교 경성중학(京中)경성『그라운드』룡산역(龍山驛)남경성(南京城)역압 여섯곳에 모혀서 만세삼창으로기행렬(旗行列)을 시작하야 부내큰거리로 행진하야 기쁨에넘치는 만세소리는 전경성을 뒤흔들어 이날경성은 전첩축하의한 비츠로 물드럿다

南總督 祝賀行事에答禮

서주(徐州)함락축하를 성대히 거행하는 이십일일 남총독은 오전십시부터 경성비행장에서보국기(報國機)경기도호(京畿道號)와 그외의 헌납식에 림장하고 동십일시반부터는 신궁에서 전승봉고제(戰勝奉告祭)에 참렬한뒤 다시오후일시이십분에는 총독부 동쪽편의운동장에 집합한 수천명의기행렬대에 대하여 만세를선창하엿다 그리고 오후팔시부터는 총독부 정면현관에서 제등행렬의 환호에 대하여 응답하리라고한다

神前에戰勝奉告
今日午前朝鮮神宮과京城神社서
官民多數參列裡擧行

서주함락의 획기적황군의 전승을 신전에 봉고하는 총독부주최의 서주함락봉고제는 이십일일 오전열한시반부터 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 엄숙하게 진행되엿다 남(南)총독 소기(小磯)군사령관 대야(大野)정무총감 윤덕영(尹德榮)자작 윤치호(尹致昊)씨를 비롯한 관민천여명이 참열한가운데 식은 아지화(阿知和)궁사 가제주가되여진행되엿는데 전첩봉고축사가 잇슨다음 총독 군사령관 정무총감 윤(尹)자작등의 차례로 옥관봉전(玉串奉奠)이 잇섯고 참열자일동의 묵도로써 정오좀지나서식을 마치엇다

또한편 경성신사(京城神社)에서는오전아홉시부터 관민칠백여명이 참집하야 전첩봉고제를 거행하엿는데 경기도지사 대리로 신곡(神谷)내무부장 경성부윤대리로 송도(松島)총무 부장등의 옥관 봉전(玉串奉奠)이잇슨다음 동열시경에 엄숙하게 봉고제를 뭇마치엇다

大阪에서도 三萬名提燈行列

【大阪電話同盟】 서주함락의 감격한 이십일밤 일곱시대판에서는 부시 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중도공원(中島公園)에서 서주함락축하대회를개최하고 각단체약 삼만명이모여서 만세삼창후 단체별로 제등행열이잇섯다

寫眞은命名式場 下右는 海軍大臣(代理)의 獻納者에의 謝辭、下左는 報國機의 高等飛行

京畿道民銃後赤誠
報國機命名式 今日盛大擧行
南總督以下陸海軍將星參列
式後高等飛行에場內는熱狂

이백사십만경기도민의 총후적성의발로로 모힌돈으로 해군에 헌납되는 함상폭격기(艦上爆擊機)네기와 공중청측기(空中聽測器)일조 헌납명명식은 서주함락의첩보에 날뛰고잇는 이십일일오전열시부터 여의도(汝矣島)경성비행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엿다 이날식장에는 남총독 소기(小磯)군사령관 심택(深澤)사단장이하 해군측으로 해군대신대리 진해요항부사령관(鎭海要港部司令官)유지해군중장(有地中將) 명명식의원장 진해요항부항공사령 안동대좌(安東大佐)이하 육해군장성 헌납자대표 감자(甘蔗)경기도지사이하 관민유력자와 이날의성의를 보려고모혀온 시내남녀소중학생、국방부인회원등 이만여명이 푸른잔디로더퍼진 비행장주위를 에워싼가운데 오전 시 일동의 국가합창으로 식은 시작되여 동열한시 남총독의발성으로 대원수폐하의 만세를삼창하고 국히장엄한가운데 식을 마치엇는데 이날의래빈을대표하야 남총독은 별항과가튼 의미심장한 축사를하엿다 식이 끗난다음 이날부터 무적『바다의독수리』에편입된 보국기네대의 전도를축복하는 야연이잇섯스며 열두시부터는 이번사변에 참전하야 혁혁한 무훈을 나라내 무전중위(武田中尉)외 여러용사 조종하에 헌납된 보국기 네대에의한 고등비행으로모혀섯던 수만관중은 해군비행대의 위력을 다시금 경탄하여마지안핫다

南總督祝辭

今日玆에 京畿道民、國防飛行機獻納會로부터 獻納한 艦上爆擊機四臺、朝鮮銀行、殖産銀行及 金融組合聯合會로부터 獻納한 空中聽測裝置의 合同命名式을 行함에 際하야 慶祝의 意를 表함。

支那事變은 이미 一歲에 가차와 第二期戰에 移行하야 御稜威下、皇軍의 戰勢殘敵을 壓倒하는바잇다하지만 前途 오히려 幾多難關을 豫想하지안흘수업다 게다가 國際의動向 亦是 逆睹를 不許하야 帝國은 現前戰事의 遂行에 專力하는外 將來의 更히深刻한情勢에 備하야 待함이잇슴을恃하는態勢를備하고서帝國의 意義를 完了하는 用意를整備할 時期이다。

凡近代戰에、備할國防國家는一로 空軍勢力의 擴大를 企圖하지안흘수업고 其優劣이 戰果를支配함은勿論、劣勢한 環境에잇서 國土民人에 不可測의 脅威를 齎하는 事實은 남김업시現事變에 依하야 明證되어잇다。 周邊의形勢、스스로 險惡한帝國으로서 擧國一心、空軍의强化를 圖하야써將來의 脅威를 排除함은 正히 喫緊의 時務이라고 말하지 안흘수업다。 我半島에在하야는 時局以來愛國의至誠、具顯하고 內鮮人一體의協力下에 幾度의航空兵器의 獻納을보앗다 只今또京畿道內民衆及團體에依하야 此美事가 發露되엇다。

本官等의 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이는單히 國軍의威容整備에寄與할뿐아니라 其熱誠은惆悵 人을動하야 擴大로하야금 起케하는好鑑이다。

玆에關係獻納者諸子에 敬意를表하고 祝辭로함。

昭和十三年五月二十一日

朝鮮總督 南次郞

라디오受信用 電氣料金引下

현하비상시국의 인식철저에 업지못할 『라디오』의 보급에 대하여는 종래일본내지에 솔선하야 정액제(定額制)『라디오』요금은 정액전등요금의삼할인(三割引)으로공급하여오던바 이번에다시조선방송협회의청원을인하야 체신국에서는 대대적『라디오』보급을 도모하려는데 호응하야 전조선일제히 이를 정액전등요금의 사할인(四割引)으로 공급하기로하야 오월분부터실시하게되엿다 이결과 전조선각지에서 수신기(受信機)용량(容量)이십『와트』에 오전내지 십삼전 도상십『와트』에는 유전내지 십륙전의 대폭의감하가되엿다

益善町에小火

이십일일오전령시쯤되여 부내익선정(益善町)백사십륙번지의삼십사호 김용환(金容煥)의집 천장에서 불이나서 일시소동이되엿스나 곳 꺼젓다 원인은 루전인듯하다

新設町典當舖强盜
漢江橋우에서鬪格끄테逮捕

지난 사월십오일 새벽두시경 부내 신설정(新設町)일백삼십칠번지의이호이태신(李泰信)이가경영하는 전당포 신흥옥(新興屋)에 단도를든복면강도 한명이드러와서 사무실에서 곤히 자고잇던 동전당포 사무원 김덕균(金德均)(二五)을 깨워놋코 단도로협박하고 금고에 드러잇던현금오십오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잇서서 그동안 동대문서에서는범인체포에 노력중이엿는데 드디어 사건발생후 달포가지난 금이십일일새벽한시에 동서형사대의 손으로 한강교(漢江橋)우를통과하는 진범인을 맹렬한격투끄테 체포를 보기에 이르럿다 이사건은 당시 사무원 김덕균(金德均)이가 주인모르는부채가 만혀곤란케도 잇서 처음에는 김덕균의 허위(虛僞)고발이 아닌가하고 동대문서에서의 심한일도 잇섯더니 마침 사건의귀추가 주목되여오던것이 그후 왜성대(倭城臺)일대에 이와비슷한 절도사건이연거퍼 이러나데서 단서를 잡고서 비로소수사의 주력을 남경성방면에옴기고서 활동한결과 오늘새벽에 한강다리우에서 진범인을 잡게된것이라한다 잡힌범인은 본적미상 현주소부정의 리홍쇠(李興釗)(二一)로 전기신설정 강도사건외에 여죄가매우 만허 삼월십구일 새벽에하왕십리(下往十里)이백팔십번지 리의선(李義善)의 전당포에 침입하여 현금일백육십원을 절취한것을 위시해서 쌀가게 포목상등 무려여덟군데에서 일천여원이나되는 금품을 절취한것까지 자백하엿다한다

祝勝畵報

◇寫眞‖上은 朝鮮神宮의戰勝奉告祭式場 圓內는 貴賓席×은南總督、○은小磯軍司令官、中은大祝賀會의萬歲三唱 下는 本社前을通過하는 旗行列

少年二名轢死傷
金泉驛構內慘事

【鐵道局着電】이십일일오후네시십오분에 김천역(金泉驛)안에서 김천부내경정(京町)리경상(李敬相)이남 석윤(石允)(二三)과 손희수(孫喜洙)장남룡히(龍熙)(一〇)두 아이는 작업하고잇는 화차에갈려서 석윤은 배가부러지어 직사하고 룡히는 왼편다리가끈처젓다한다

靈峯金剛山에 探勝客輻輳
鐵道局旅客係에團體申請遝至

경승 금강산을 차저가는 탐승객은 신록이 지터감에 따라날로 점점느러간다 철도국려객계(旅客係)에서 조사한바를 보면 지난사월까지의 등산객은 학생 십오단체로 인원은칠백오십사명이며 일반은 칠단체로인원은 이백구십이명이엿다 그러고 오월까지의 『시인』은 학생 이십일단체로 천구백사십이명이며 일반은이십일단체로 팔백육십사명이며 한게오십삼단체로 이천칠백명이나된다그래서 작년도의 사십사단체에 이천륙백사십사명을 이미돌파하엿다 이와가티 무척만하저가는 터이므로 금년의금강산 탐승객은약이만명가량될것으로 예상된다한다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東支那海로부터 朝鮮及關東地方을덥고 또滿洲와小笠原附近에는 低氣壓이잇다 低氣壓은 黃河中流에잇서서 東進하는中에잇고 朝鮮東岸海上及滿洲東部三陸沖等에도 弱한低氣壓이잇다 滿鮮은 晴天가 흐리고잇지만 大體로日氣가조타 內地는 關西가 晴明하고 中部以北은 흐리고 處處에小雨가오는곳이만하잇다

豫報 今夜와明日은흐리다

昨日最高 十九度
同 最低 八度三
今朝最低 八度五
今日正午 一八度八

全日本蹴球朝鮮豫選
全延專과鎭南浦決戰
蹴協呂會長辭任·任員改選

朝鮮蹴球協會 評議員會는 二十日午後六時半부터 南大門通靑木堂에서 在京各理事와 關西支部(嶺南、關北缺席)가 모힌가운데 蹴協常務理事 李榮敏氏 司會下에 열리어 會長呂運亨氏로부터 大日本蹴協憲章에 依하야 朝鮮蹴協에서도 從來의 代議員會를 今番부터는 評議員會로 改稱하기로되엿다는 理由說明이잇슨後 이어서 呂會長은 一身上의 事情으로 會長의職을 辭하겟다는 懇請이 잇서 理事會에서 協議한結果 어름受理케되엿다 그리고 會長後任問題는 理事會에 一任하고 當分間은新任副會長 尹致旺氏가 代行하기로되엿다하며 이번에 새로히選任된評議員은 全部十二名으로서 其中에서 理事(執行機關)五名을 다음과가티 選定하엿다

◆評議員 李仁圭 李丙學 玄正柱 權熙昌 金有弘 林炳赫 韓奎河 金基道 李榮敏 金光信(關西) 李成周(關北) 宋寶(嶺南)

◆理事 權熙昌 金有弘 李榮敏 李仁圭 玄正柱

그리고 同協會事業案에드러가 第四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朝鮮最終豫選은 來二十八日에 京城運動場에서 中央支部에서 優勝한 全延專軍과 鎭南浦軍(關西支部推薦)戰을 行하기로되엿스며 第二十回全日本中等蹴球選手權大會派遣朝鮮豫選大會는 來六月二十日以內에 各地方(關西、關北、中央、嶺南、湖南)에서 豫選을 마치고 同月二十日부터 三日間京城에서 最終豫選戰을 行할것과 三地方(關西、關東、朝鮮)蹴球리ー그戰은 明年一月부터 東京에서擧行할터인데 이에出場할 朝鮮豫選大會는 九月이나 十月에 地方對抗蹴球리ー그戰을 行한後 全朝鮮軍을 다시編成하야 派遣할것等을 協定하엿고 其他問題에 關하야서는 모두 理事會에一任한後 同十一時半에散會하엿다

學生籠球
八個校參加

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의 春季大會는 來廿七日、廿八日、三十日의 三日間 東崇町城大코ー트에서 擧行할터인바 競技日程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A、延專……師專(廿七日午後二時廿五分)
B、城大……醫專(同日午後四時卅分)
C、世專……法專(同日午後五時卅五分)
D、普專……高商(同日午後六時四十分)
【準決勝】
C의勝者……D의勝者(廿八日午後四時五分)
A의勝者……B의勝者(同日午後五時廿分)
【決勝戰】卅日午後五時

色鉛筆

래일이 또일요일이라 근래에 왕성한 하이킹이 이날에도 왕성하야 원근산천에는 씩씩한 남녀가 상당히 동원될것인데 ▲하이킹이라면 『룩작』이라는 봇다리를걸머지안코는 『하이카』의자격이업서 지는것처럼 대개가『룩작』을지고 다니는것이한 시체꺼리가되여잇서 산에만 가면 그복색을하고 나서다 ▲그런데 이시체에 빠지지안는 가장적절한 한친고를보앗다 어떠큰 교산에 사람만히 모이는날 대개평복을하고 가는데 어떠한것어 모처럼 와살스러운등산구두를신고 유와까지 돌리젓다는것이 그속엔 무엇이들엇는지 말러죽은 거미등어리 가튼것을지고다닌다 ▲그후 어떠날 전차간에서는 엇더잇는애기가 『룩작』을 들더지고 콧코장울자는것을 보앗다 선뜻 생각나는것이 전자의 장경이엇다 ▲그러캐거니 …대개 시체라고하는 그것이…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조선音樂解說 朴慶浩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趣味講演(京城) 姜在鎬 ▲六時三〇分 趣味講演(平壤) 朴尙信 ▲七時三〇分 講演 安東赫 ▲八時 新民謠 高一心 笑聲 姜顯洙 ▲八時三〇分 音律 朝鮮正樂傳習所員 ▲九時 野談 崔汝成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物語 ▲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三〇分(東)歌謠 ▲七時四〇分(京)講演 ▲八時(東)管絃樂 ▲八時四〇分(東)家庭講座 ▲九時五分(大)浪元

延禧莊住宅地 第一期工事完成紀念 特典附大賣出

物價暴騰時에잇서서
◎資産의 保全確實한投資는 土地에限한다!
◎保健과空襲防護에는반드시郊外住宅地이다!
人氣의焦點! 暴騰은目前에닥첫다!
賣出……總七十五口 一口六十坪으로 三百坪까지
定價……整地一坪 三十五圓으로 三十九圓까지
特典……先客十名에限하야 定價의五分引
이外全客에 京電十圓券贈呈

文化施設完備 交通至便
住宅地의王座 延禧莊
勿失此機!!
五月十五日부터 五月三十日까지
俄然大好評
곳오시라
賣出中各日曜에는 西大門으로延禧莊까지 自動車로 迎送하겟습니다
京城府北阿峴町 延禧莊土地經營株式會社 電話(光)二六九五番
案內書贈呈 割賦償還의便도잇습니다
市內案內所 南大門通三丁目 株式會社 吉川商店 / 黃金町一丁目 株式會社 裕豐商會 / 長谷川町 朝鮮建物株式會社

麻雀 自家製造 東京淺草藏前 下方屋
俱樂部向・家庭向・牌彫直改色 カタログ送呈

百日咳에 コデス

どん底
美しき鷹
東和商事提供
ジャン・ルノアール監督 ジャン・ギャバン ルイ・ジューヴェ主演
日活多摩川 千葉泰樹監督 小杉勇 轟夕起子主演
廿二日ヨリ 黃金座 一均30セ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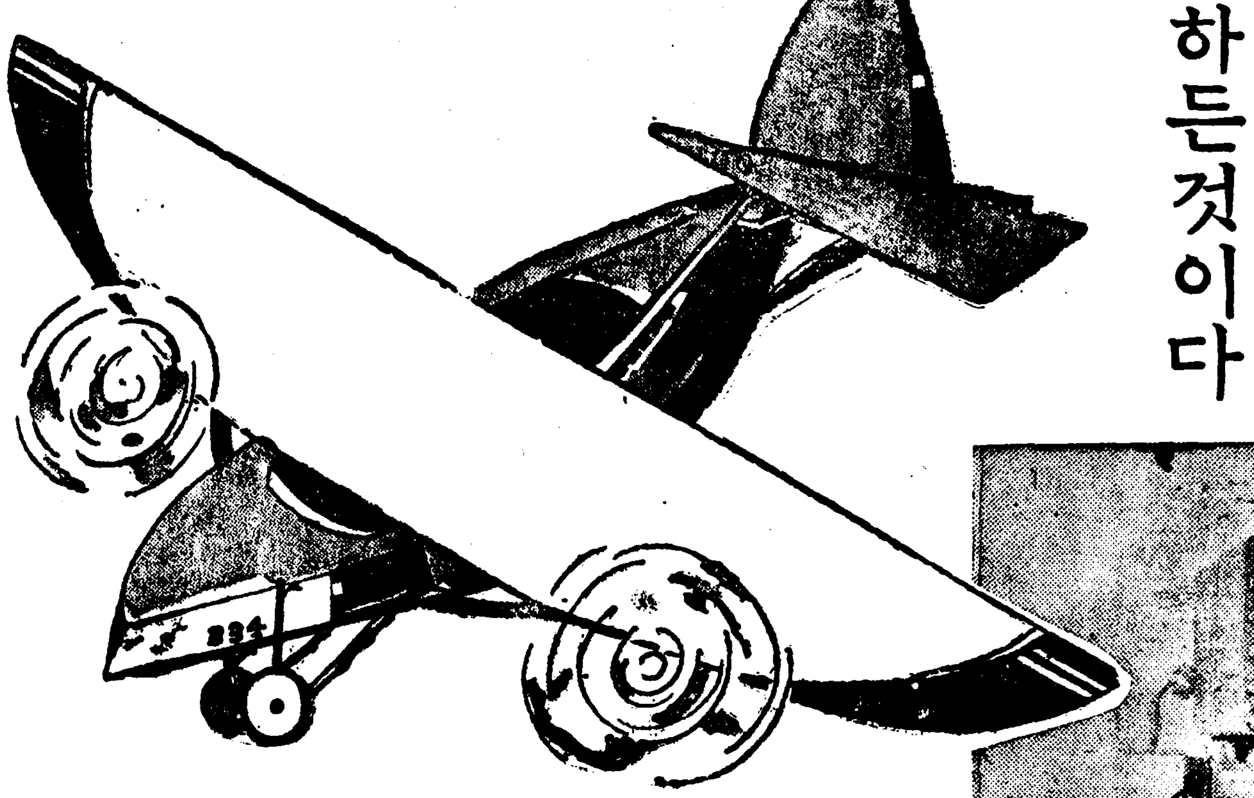
ナショナル
家庭의守護에 期於코此一燈을
밝은 람푸
便利한 燈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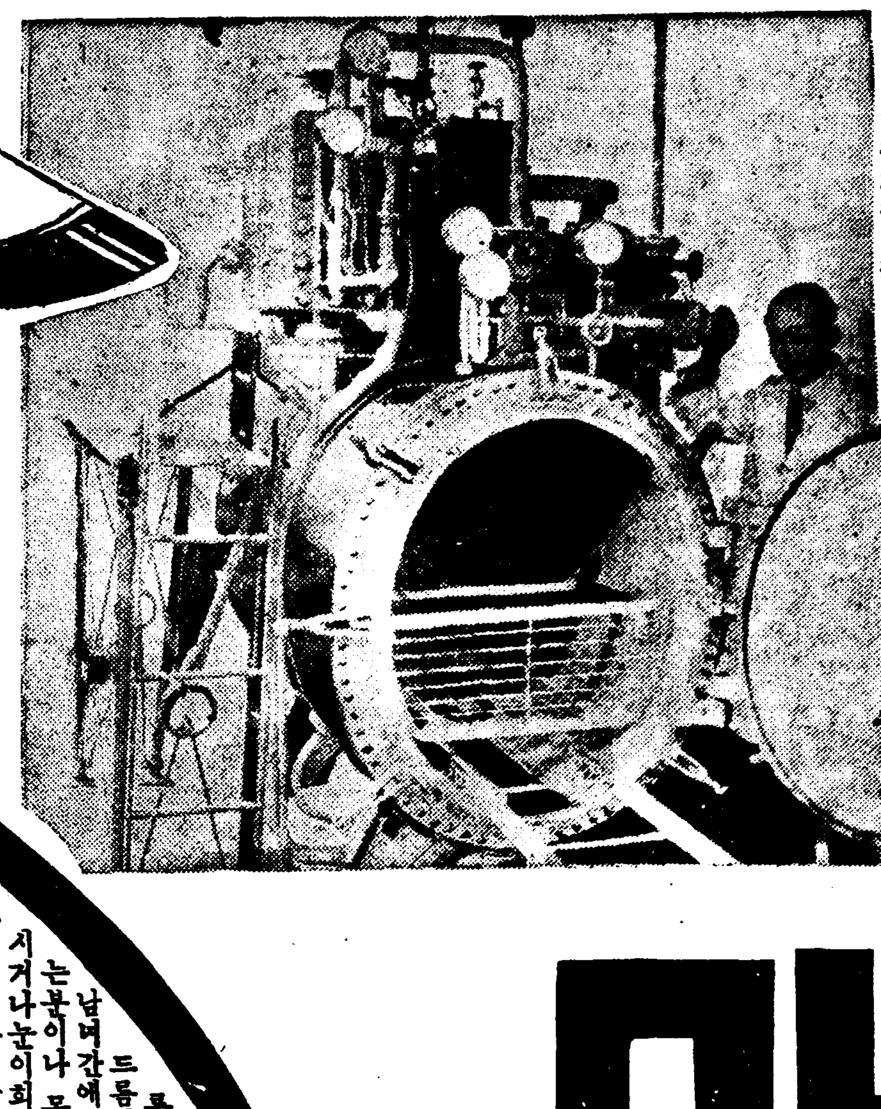
ナショナルランプ
람푸는 나쇼나루
ナショナルランプ
松下乾電池株式會社

시대와 과학은 초급속도로 진보한다

추진식(推進式)비행기의 놀나운속녁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든것이다

推進型飛行機





지금 안곳치면 대대손손 칠팔대까지 유전하는 무서운 병은 매독이다

이추부를보시요 그전에는남못잔튼미인이엿습니다

매독엔 푸로다ー를 쓰시오

임조제니만일마음대로안되면어떠한책임이든지집니다

주사를 여러대 써도 안되는분은 꼭 푸로다ー를 쓰시오

매독엔 「푸로다ー」로

다음과가튼분은 지금 곳 쓰시와 인생의 가장 제일큰 행복인 무병장자가 되여행복하고 거룩한 건강미를 맛보서오 얼굴에 여드름이만커나 곤여드름이톡톡터지거나 남녀간에국부가가렵거나 몸에종기가잘생기는분이나 몸이매매로가렵거나팔다리가쑥쑥쑤시거나눈이희미하고 침침하거나 머리가잘빠지고 어뎌든지살이 조곰식 패여드러가거나하는분 이런여러가지증세중에 한가지라도잇스면 곳쓰시오 그리고 신성당매독약 푸로다ー는 무병한 분도피를맑계하며 보혈강장합니다(淸血補血)조곰만 다처도잘곰는분은피가납버서 그러하니푸로다ー를 써보서오 주사로는안되는것이확실히증명되엿습니다 그증거는 주사가 나온지가 근오십년이나되는데 매독이점점 퍼지는 것을보드라도알지안습니가 또주사를잘못하면 팔어쌔어곳팔을잘는분도만코 곳못잘느기때문에 전신이쌔여서죽은 사람도 만코 또호수를(號數)잘못하야 밋친사람도잇고 주사한대만마지면 일주일동안일을 못하고 드러누어야하니 버러먹는 일만은분은 할수도업고 일주일에한번식 마지러병원에가서 허비하는 세간만하여도 몃십원 이나되오 일주일에한번식 안마지면 죽는고로 그러합니다 그리고수십대마저도 안되니 장구한날자와 돈배원이나들어도잘안되니 무소용이지오 신성당 푸로다ー가 선호한지안한지는 이광고가 증명합니다 적어도 수만명이 운권청천으로깨끗하게되여효력을 본분들의구전(입으로선전)으로 널리널리선전되여잘팔니는고로 이러케광장하게 항상 광고할수엿는것이오 매독약으로내외국을 다ー처노코제일 광장하게항상 선전광고하는것은오즉 신성당의 푸로다ー하나박게업지안습니가 잘생각하여보시면 알것입니다 매독이즉당창인대당창병이잇는사람은 사람축에 돌지못하고겨테오지도 못하게하며 자기일신만고통을밧는것이아니오 전가족에게전염이되기쉽고또대대손손까지 유전하여주는것이니얼마나무서운병이냐자기만걸려서자기만죽는다면 할일업지만전가족과전혈족대대손손까지 그무서운 병균이 집히전염되니 문둥병보다도 필신더무섭다무섭다 무서운줄알고도 못고치는자는무어 라고할가ー일각을지체하지말고곳완치하여야한다살이퍽퍽써어들어가는것을만히보앗다그일례(其一例)를들면하로는경성시내에엿는한남자가원전신매독이만창이된서 골머슴을다리고(雇人)왓는데 와서병좀고처주시요하고그병처(患部)를볼고깜작놀낫다 그병처라는것은당초에말할수업는것이다 죽분문(肛門) 과낭(囊)사이에 이전(一錢)짜리동전만하게 큰구멍(孔)이뻐두러저잇섯다아이 저러케몸에 구멍이뚜러지고도사람이엇떠케살어왓나하고 차차물어보니서울서머슴사리하다가시골서역시 머슴사리를하는데우연히매독에걸려 차차살이써어먹어들어가나머슴의신세라 약쓸돈도업고 주사마즐돈도업고하야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그러케구멍이크게뚜러젓고요저옹은전신에 종긔부스럼이(梅瘡瘻)톡톡터저인제는못살것가터서그전살엇든정의 서울주인을차저와서 로사람좀살려주서오하고애걸을하려온것이판명되엿다 그리하야그주인이 돈은내가 별터이니 이 불상한사람을 좀살려주시요하고 차저왓섯다 그러하야 약을주엇더니 완전한사람이되엿다고 편지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에 웬남자가 한부인을 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 송진처럼두덕이가저서 소름이끼처여서 눈으로는볼수업시되엿는데 그부연말이 어병만곳처주면죽어도 그은혜를 안잇겟다고 우는목소리를하면서 하는말이 여자가얼굴이 이럿케되여 남이부끄러워 살수가 업스므로 주사는 물론 여러백대를맞고 약이라는약은 잇는대로 다쓰고 별별치료를 다하여보앗스나 종시 낫지안하는대 엇던사람은 암만 매독으로 처료하여도 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 풍이라고하야 풍약도 무수히써도 안되고하니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매독이어니고풍이라도 나을수잇는야고 말을하얏다 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 단순히 매독창병만낫는게아니고 보혈청혈(補血,淸血)피를 깨끗하게하는약이므로 설령매독이안여고 풍이라도조흐니 한번 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옛칠후에 그부인이왓는데 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 아ー참위대 하구나 약의 힘이여 그러케도 무섭게생겨눈으로 볼수업든사람이수일간에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 그부인말이인제는사러낫습니다 선생님의 은덕이야말로 태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그뒤로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 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 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 임질이나부인대하증 냉병은자손에게유전(遺傳)은 안되는데 어매독은 자손에게유전한뿐더러칠팔대(七八代)를 대대로전하여가는것을 알고코가떠러지고ㅇ도빠지는것을알게되엿다 즉남편이병에걸리면 그부인도물론 꼭걸리고 아이도피속에균(菌)을가지고나온다 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 적은줄알엇더니 사실은 그러치안타 다ー버텀에 못치고 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 그러치안타 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 대개는상약이나주사나만히하엿서도 낫지못하고고통을 밧는것을알엇다또수은(水銀)을피다가죽은사람이만코다른혼을하더가병설된사람이만다또조약상약(造藥常藥)을 쓰다가괴를토하고구갈(발통파창자를버려)이나서죽게된사람이대부분이다그러므로 이무서운병을알면서그냥둘수업스므로충분히연구를하엿섯다 그리하엿드니감사장이매일답지하므로자선을어더여와가려 광고를내게된것이다천만가지로약을 하고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 고통하는분은일시라도주저 마시고곳시험하서오를 림업시낫습니다

가약

- 완고중에 십오원
- 중중에 십원
- 경중에 칠원
- 송료선금 십오전
- 대금인환 삼십오전

다른병과다르니「십오원짜리」를 쓰시고 후환을업세시오

특제 옥미환 삼원오십전
특제 팔미환 사원

이외에 무슨약이든지 구비하오니 다소를불구하고 주문하십시오

資本金百萬圓 朝鮮第一가는큰藥業會社

支社長大募集 (大特典附) 規定書郵送

漢藥은 신성당이제일싸다

ケンオー(경오)王 元

本舖鮮滿總發賣元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서대문제일큰한벽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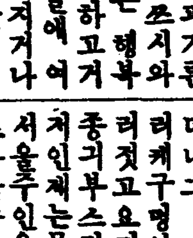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三四九九番・光化門一〇七七號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私書函西大門第一號光化門第四五番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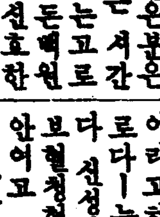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잇는 병인데 대단히괴롭고 더러운 병이라 심하면 몸에 큰구멍이뚤식섞식난다 보통수술을하는니 단 근치를하는니 상약을하는니 하나 [illegible]

속병 체증엔 겡오ー가제일



누구나 체증이잇는대 잘체하고구미업고 끌꿀하고 신트림하고 배아프고 설사하고가슴이쓰리고 생목이올나오고 배가부굴부굴하고 박기가 잣고하면 체증이라곳안고치면 폭맥키면 즉사한다 맥켯든지겨도 곳술는 것이 겡오뿐이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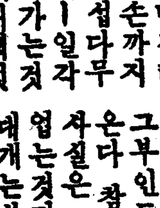
해소 기침엔 에치세ー가제일



사람이 생명이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는대 이호흡기관에 병이잇스면생명에편게가된다 해소, 기침, 담 천식등은 호흡기 [illegible]

신성당명약「에치세ー」(HOHIPE)는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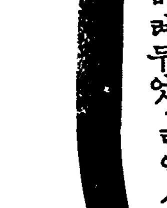
폐병엔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세ー(NAOPER)가제일



세계에서 유명한신발명의약제가만히드러왓습니다

폐병은 난치의병으로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데종래의치료 [illegible]

보양을 젊어지는약 가이자ー(KAIZER)가제일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드는대신발명한약

사람은 보통백살까지는수명이 잇스나 정력이 쇠약하야 오래 못산다 [illegible]

가이자ー는신체의쇠약한 조직을 다시 소생시키는 [illegible]

림질엔 대하증 냉병엔 구로벨(KUROBER)이제일

전세계에유명한신발명의약 도만코한번에ー1마리 고치는세게약제 [illegible]

남녀 임질 [illegible]

흘린다고는하나 땀에도여러가지

오색땀에다가식은땀과더운땀

겻내나는것도땀때문

이제부터 날이 차츰 더워질테니까 자연 땀을흘리게됩니다. 그런데 땀은 더워서만 흘리는게아닙니다. 식은땀도나고 냄새나는땀、빗갈이잇는땀─땀에도 여러가지 종류와 흘리는경우가 잇습니다. 또는 병으로 흘리는것도잇고 그저흘리는것도잇습니다.

땀은 피부에잇는 한선(汗線)즉 땀구녁에서 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는 분량으로 말하면 대략 일럿 홉쯤됩니다.

그런데 땀은 웨나느냐하면 땀이나므로말미암아 체온을조절하는것입니다. 더운날 일을만히하면 땀이몹씨나는것만 보아도 알것입니다. 그리고 살이몹씨찐 사람이 보통사람보다 땀을더만히 흘리는것은 살찐사람은 가죽미테 비게가 두거움으로 체온의 발산을 땀을빼아서 하게되니까 자연 땀을 만히흘리게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더운때는 땀을만히 흘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밧게도 땀을흘리는것은 우리몸에 대단히 유익한일이잇습니다. 즉 땀에는 강렬한 산(酸)이 잇기때문에 피부에 전염을 막습니다. 우리몸거죽에는 수없이 만흔세균이 늘 부터잇습니다 이것을 땀속의 산으로 소독을합니다. 그러니까 땀으로 한벌 온몸둥이를 소독해내는셈입니다.

그다음 땀에도 여러가지 종류가잇는데 빗갈이잇는것도잇고 또는 생리적으로 나오는 더운땀외에 식은땀도 잇습니다.

빗갈이잇는땀은 대개 병적으로 나는것인데 푸른빗、누른빗 붉은빗등의 땀이나오고 또 제일귀찬케할것은 냄새나는 소위겨드랑땀입니다

식은땀이란것은 무슨일에 몹시 못그릴때와 무서울때 또는 손에 땀을쥐만치 긴장될때에나는것입니다. 이것은 연수(延髓)와척수(脊髓)에잇는 땀나는 중추(中樞)가 정신적영향을받어서 자극되므로 흥분해서 나는것입니다

냄새나는땀은 여러사람에게 불쾌한생각을 줄뿐아니라 자기자신도 여간 곤난이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 취직、결혼에도 큰영향이 잇습니다. 이러한 땀은 특히 지방산(脂肪酸)에스테르라는 것을 만히 가지고잇기때문에 이것이 분해거나오면분해해서 그고약한 냄새를피이는 것입니다.

이와가튼것을 치료하는데는 이땀물이잇는데를 차저서 그곳을 끈허버리면 완전히 업샐수잇습니다.

또는 빗갈잇는땀은 일종의 빗갈잇는 세균의 기생으로 되는것입니다.

이밧게 온몸에 방울만큼을흘리는사람 땀이넘우만흔 사람들은 이것이 대개 병적입니다.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증으로 일어나는것은 이것도 발한중추(發汗中樞)의 이상으로 부터오는것인데 련도전선의 중추박사가 흥분되어잇습니다.

목음 (平壤正義高女校醫)

습기만흔 철되면 은이 잘죽어요

이러케닥거봅시요

장마철에 들어서면 은수저나 은으로만든 화병、대려미、은잔등 그릇들이 쇠가슥고 때가끼이기가 쉬움으로 잘손질하지안으면 안됩니다.

은그릇은 닥는데는 소금으로 썩썩문질너 닥는분이잇스나 이러케하면 때도 시어히 빠지지 아커니와 은이 갈려서 못씁니다.

그보다도 은그릇을 닥는약이 잇는데 그약가운대도 가루약과 주ー푸에든 약두가지가잇습니다 그런데 주ー푸에든것은 기름끼가잇서서 잘닥지못하면 되려 못쓰게되므로 서투른 솜씨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루약이 제일 조키도편하고 조흔데이가루약은 무명헝겁이나 네루조각에 찍가지고 닥그면 조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명주나 비단가튼부드러운 헝겁에 싸서닥그면 더조흔줄아는 분이 잇스나그것은 잘뭇이고 무명이되려 낫습니다.

그무명헝겁조각에 약을찍가지고 물에다 살작 적시여가지고 은그릇을 닥습니다. 그런다음마른수건으로 여러번이든지 작고닥그면 빗갈이나고 때도빠집니다 숫가락이나 식기가튼 매일쓰는그릇은 늘그러케 닥글필요가 업고 그것들로 깨끗이씻처서마른행주를 잘해두면 조습니다. 그러나 흘흘쓰지안는 그릇은 한서너달동안만 쓰지안코그대로너허두면 검어케 죽어버립니다 으로 한벌에 한번쯤은 끄내서 닥는것이 조습니다 그러나 어때는 가벼게닥거주면됩니다 은나는약을구하실수업는경우에는이닥는약이 ...

냉수마찰

오분동안이면 넉넉됩니다

요새부터시작만하면 겨울에도문제업서요

몸을튼튼히하고강하게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잇지만 간단하고도효험이큰것은아모래도 냉수마찰에 넘어가는것이업습니다.

냉수마찰은 어른은 물론 아희들로 여덟살이상이면 해도무방합니다. 그리고 냉수마찰을시작하기에 꼭 적당한시기는 요즈음이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즈음부터 냉수마찰을 조금씩 시작해서 피부를단련시켜노흐면 그다음 여름을지내고 겨울에 들어서도 추어도지지안코 잘하게됩니다.

냉수마찰의 효험으로 말하면 첫째로 피부를 마찰해서 튼튼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과 위장을 튼튼케하고 또는피부를깨끗시함으로 기분이 명랑해지고 정신이 쾌활해집니다.

그밧게 아침일직이 이러나는 습관을 길르게하고 아침에 신선한공기를 마시는까닭에 위장이약한사람、빈혈、변비、신경질등의 사람이나 가슴이 옥으라드던지 등이 굽으러던지 몸써 여윈사람 허약한 아이들 감기걸리기쉬운사람─이런사람들은 요즘 꼭 이냉수마찰을시작하는것이 조습니다. 또는 왼종일 안저서 일해서 운동이 부족한사람에게도 대단히 조습니다.

그런데 이냉수마찰을하는 방법은 건강한 사람이면 수건에다 냉수를 적시여가지고 꽉짜가지고 온몸을 빨개케되도록문질을것이요 비교적 약한사람은 마른수건으로 피부를 문질러야합니다. 그런데 마찰할때는 늘 심장잇는데로 향해서 문질러야합니다. 예를들면

一、팔=손끗에서 시작해서 팔목을거려 문지르되 두어번할것

二、목=가벼게 아래위로 두어번 문지를것

三、가슴=젓글로부터 기운 배심장잇는데 향해 문지를것

四、배=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문지를것

五、다리=여기는 아래위로 문지를것

이상과가티 마찰하되 시간은 오분가량할것이며 냉수를 뒤집어씻슬때는 반드시 마른수건으로 물끼가업도록 말짱 닥거야지 그러치안으면 감기들기쉽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몸에 열이잇던지 기분이 납부던지 기침이날때는 하지마러야합니다. 이밧게도 심장이 납분사람 늑막、복막、선장、호흡기병등에는 조치못하니까 냉수마찰은 절대로하지말어야합니다.

우리차지

걱정업다

「애 이고양이좀마텻다 다우 뒤보구 나올께」

「물면 어떠캐」

「안문다」

「할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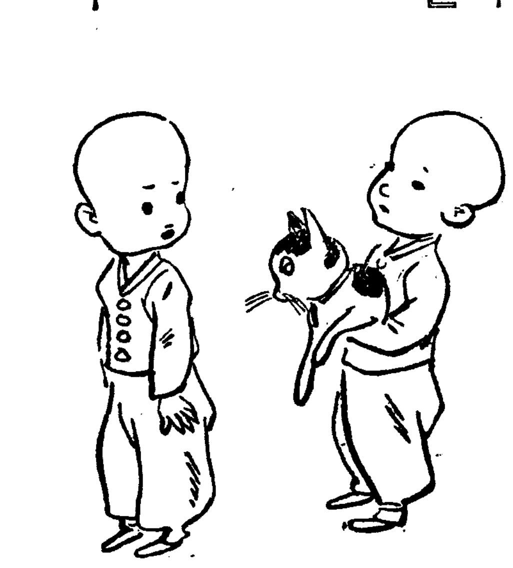
「아ー니」

「다라나면 어쩌게」

「그러잔어」

「그럼 내가안마타뒤두 되겟구나 뭐」

(금곤사람 최복술)



長篇小說

愚氓 【36】

朴泰遠 作 洪祐伯 畵

거리의哲學者(九)

근풍위는 잠깐 대원님의 얼굴을 마조 바라보앗스나 작시 다시 고개를 떠러트리고 섬히 나는 어조로 말하엿다.

「물론 이곳은 다시 그러한 일이 업도록 주의는 단단히 시키겟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알수 업는것이오며、그자도 언제까지 종으로서 본정이구까지로만 다니리라 기약할수업는 일이 아니옵니까? 어떠한때 또 다시 그러한 끈욕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오라、역시 진작 조처하여 버리는것이 조흘까하옵고……」

「…………」

그러나、대원님은 다시 주먹으로 무릅을 가만히 두다리며 아모 말이 업다.

「저이들에게만 편한 일이라하오면、저를 아예 무엄하게는말을 내노치 못하게한다든 후은 아조 어디 시골로라도 나려보내다든、그러면 위선은마음을 노흘수 잇슬것이옵니다 그러나、그자가、미치기는 하엿도 아직도 머리 한구석에 많은 정신이 남어 잇는듯하와、제가 김유옥이라고 떠들고 다니오면、또 저이들모르는 사이、어디서 어떠한 종작 업는 소리를 늘어 노흘지 모르는 일이 아니옵니까?……」

근풍위는 또 잠깐 말을 끈코 대원님을 바라보앗스나、그는 역시 대답업시 무릅파만 가만히 두다린다.

「그러케 되오면、누가 대원님께까지 미치는것이오니 결코 우숩게 여기고 내버려둘일이 아님가 하옵니다.」

「…………」

그는 역시 말업시 잇다가、한참만에 고개를 들어 뭇는다

「그자가 숙식을 어디서 하오?」

「왼종일을 길바닥에서 지내다가 저녁이면 다리미테서 자옵니다.」

「누가 따라가 보앗소?」

「녜ー、제가 어제저녁에 알어보니 바로 관수교다리 아레서 거지떼와 함께 지내옵니다. 실성을 하엿다든으로 다른사람에게 미친 지랄 한번 하는게 아니라 까정이들도 그것이 가여웁다고 어더온 밥도 한술 주고 더러는 몇푼식 돈도 집어주나 보옵니다.」

「그것을 달게 밧는 모양이요?」

「바를때도 잇고 안바를때도 잇고……또 먹는대야 아마 몇숫갈이못되는 모양이옵니다.」

「…………」

「간밤에 도라와서 그자 간단히 조처하올 도리를 생각하여사오나……」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끗나기전에 전영호는 주먹으로 무릅 뚝뚜드리기를 끈치고 나즈나마 굿센 어조로 말하엿다.

「가만 두어 두시요.」

근풍위는 그의 마음속을 알수업다는드시 잠깐 그의 얼굴을 지켜 보고 잇섯다.

「그사람을 해할 생각은 아예 마시요. 가만 내버려두어 아무 폐단이 업슬께요. 폐단이 잇소、생각해보시면 그때는 내가 도리를 생각해볼리이니…」

조원준은 다시 한번 자기의 의견을 말할까 하엿스나 대원님의 얼굴에는 구든결단이 나타나 잇다.

「녜ー。」

근풍위는 몸을 단정히 하여 그에게 예하고 자리에서 몸을 이르켯다. 그가 마악 염방으로 물러나왓슬때 대원님은 생각난드시 장지넘어로 물엇다.

「참 아약 최이화(崔二華)가 수히 상경한다더니……」

「그런 말이 잇섯사오나、제아비 최수부의 병이 갑작이더하여、아마 못 오나 보옵니다。」

「최수부의 병이 그리 대단하오?」

「이젠 아마 다지 시간문제인가 하옵니다.」

「으응。」

근풍위는 잠깐 염방 문턱에가 섯잿、대원님의 다음 말을 기다렷스나、다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안는다. 그는 가만히 헛기침을 한번 하고、사랑으로 물러나왓다. 나와서도그는、교도들의 생명을 앗기ー초개와 가튼 교주가、어찌하여 그 미친자의 목숨 하나를 그다지도 애끼려 하는것인지 아모리 궁리하여도 그까닭을 알어 낼수가 업섯다.

그도 그럴것이、조원준은 자기가 그자의 이야기를 하고잇슬때、전영호가 아들 한수 생각을 하엿다는것을 모른다。사실에 잇서서는 한수와 김유옥과는 털끗만한 관계가 업는사이다. 그러나、현재 자기가 그의 이름을 빌리고 잇섯고、또 호적에는 한수의실부로 되어잇다. 그러한 김유옥을、전영호는 차마 죽일 마음이 안생겨던것이다.

HK.7

牛乳石鹸

愛児の柔肌を健やかにする!

健康美의 若肌에!

여간조치안어요!

P・C・L 原節子

新綠의 五月에는 생생한生氣가身體에 넘치는 一年中第一潑剌한씨ー슨이예요

하지만 살결이거칠던지부름이만히나서 괴롭지 안어요? 난前에 그렛섯서요 근대지금은이러케明朗해젓서요!

「당신살결은 언제보아도 움트는새싹과가티 潑剌하니 무슨조흔 秘訣이잇소라고 撮影所에서각금듯는』대 난『レートクレーム박게안발른다고』對答합니다!

化粧下에도 レートクレーム가第一조코 오빠도面刀後에는이보다더조흔게업다고하십니다!

・健康美의素・白粉밀림을防止하고・面刀後에조흠・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學芸

文學意識과 生活의 乖離 (三)

尹圭涉

文學意識의 成立이

自然 에對한 文化의意識의成立을 意味한다 참다운(眞)이라든가 참다운『文學』이라든가의 自覺은 驟少하나마 新文學 以前의 傳來의文學에서는 全然 存在하지 안엇든것이다。이제 그가튼 自覺은 겨우 이땅의 文學人에게 올든기 始作한것이다 이意味에서 조호나즈나 이미 新文學이 이땅에 터를잡은것만은 事實이다。

新來 文學意識은 新文 뚜렷한 意識形態로서 文學人의 머리를 支配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日常生活意識하는 擊醬을 생기게하얏다。

勿論 文學意識의 成立이란은가 發展은 社會的變化와 그發展에 制約을 밧게되여 거기에는 반다시 生活自體의 變化가 따르게되는것이다。그러나 그生活의改革이 미처따르지못하고또한 社會의變化와 發展이 그에 미치지못할제 어떠한現象이 惹起될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文學과生活의 距離 나아가서는 文學意識과生活意識의 乖離를 보지안흘수업는것이다 即文學意識이 압서게되고 生活意識이 뒤떠러질제그사이의 葛藤과 相剋은 그가合致될때까지 免할수업는 受難인것이다。

實際 現階段에 잇서서 우리의文學意識을 이미 나갈수잇는 極限까지 前進되어잇슴에 不拘하고 그現實的基礎인 우리들의 日常生活은 아직도 封建的殘滓에 沈澱되어 그사이의 距離는 너무도 懸隔되어잇다。

文學과生活의乖離。여기에 우리는 우리文學의 全貌를 차질수잇슴과 同時에 우리文壇에 蔓延되어잇는 모든禍因을 看取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如何한

境遇 에잇서서도 또한 如何한 困難이잇슬지라도 文學과 生活의距離는 短縮되고 統合되어야할것이다。그것은 文學自體가 社會意識이라던가 生活意識또는 現實에對한認識으로써 特殊한 文學에依한 形象的形式에 지나지안는다는 單純한命題로써 充分히理會할수잇는것이다。

그러면 우리는이제 이가튼生活과文學의乖離가 이땅의文學에잇서서 어떠한形式으로 解決을짓고잇는가 또는 지으려고하는가를 檢證的階梯에 이르럿다고본다。그것은 이땅의 現階段的文學을

부터 文學과 生活의分離를 그대로 肯定하야 當然하는 態 [illegible] 수잇다。그들에게 잇서서는 文學그룹건이 마치 [illegible]

規定 된것으로써 社會的現實이던가 日常生活과는 無關係히 存在할수잇는 極히抽象的인 文學主體를 設定하고잇다。이것은 勿論文學的自意識의 過剩에서 오는것이겟지만 筆者가말하는 新文學意識과는 當初부터 아모런 結緣도잇을수업는것이다。이러한傾向은主로 이땅의所謂 純文學을 웨치는사람이라던가 藝術至上主義로 自處하는 사람들사이에 가장만히 發見할수잇는것으로써 그들은 처음부터文學과生活을 分離하엿슬뿐아니라 또한 生活意識을 社會生活에서 遊離된 所謂 純粹한生活意識에로 옴겨시키므로 거기에 무슨文學意識과 生活의對立이잇을수업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이와類似한傾向을 다른部面에서도 看取할수잇다 即 文學과生活의距離를 意識하는 一部의文學人에잇서서도 그解決方法의 容易치안흠을 看破하고서 그들亦是 文學의純粹性의 이름미테서 傳來의 傳統的인 文學理念에로(ㅡ거기에서는 最初부터

文學 파生活의 距離가 問題되지 안는다) 復歸를 企圖하는 것이다 文學과 生活의 藝術的 統一에잇서서 生活을 文學意識에까지 끄러올리지못하고 도리어 새로운 文學意識을 傳來의 文學理念에로 끄러내림으로써 陳腐한 傳統的日常生活에 合致시키려는 이가튼傾向은 勿論이땅의 常套的인 安易主義의 發露라고 할수잇다。

그러나 그根本的原因으로말하면 그들이새로운 文學意識을 受容한것만은 事實이나 아직도 그들의 日常生活은 아직도 [illegible] 生活意識에서 解脫하지못하엿다는데잇다。

여기에 그들의 意識的 無意識的 또는惰性的인 現實逃避의 길이 잇는것이며 [illegible] 것이다 現在그들은 文學과生活의 統一의 要求를 純文學이라는 私小說로 도라가므로써 滿足시키고잇는것이며 한때 輩出하든傾向作家의 [illegible] 歸着點도

結局 은이곳에 머추어잇슴을 目睹할수 잇다。

이가티 보아올때 文學과生活의乖離에 참다운 統合을 試圖하기는 이땅에잇서서 可能할수업는것도갓다 即以上에서도 言及한바와가티 一般的으로 새로운 文學意識成立의 現實的基礎가될만한 生活과 文學의 藝術的統一이 하나의 傳統으로써 아직 發達되지못한데다가 歷史的過程은 政治와 文學을正面으로 마주치게한곳에 이땅의 文學人이 머리를들지못하면 안될 오늘의 特殊한 困難性이 노여잇다고할것이다。

그러나 誠實한 作家는 누구나 이 難關에 苦悶하지 안흘수업서다。그것은 問題를 正當히解決하려는者만이 가질수잇는 高貴한 [illegible] 文學과生活의 [illegible] 統合을 보지못하게 [illegible] 文學的傳統이 미처서지못하게 이땅의文學에 다시금 [illegible] 누구라 [illegible] 文學人으로써 그것을 [illegible] 는 [illegible]하지안흘것인가!

漢詩

題梨花 押香

桐岡考選

三等之三

江西郡咸從面咸從里 李明玳

巧剪輕綃染雪霜
千紅不及此花香
新枝遙認沙禽集
晴蕊還疑玉女粧
傍樹尋常皆失色
番風廿四擅生光
如今却恨無名畵
只把臙脂寫艶陽

綠陰愛誦詩 (五)

金尚鎔

나는 내 발아래
어떤꽃들이 잇는지를 모르네。
어떠부드러운花香이
가지우에 어려잇는지를모르네
다만 향기로운 이 어둠속에서
풀과 덤불과 野生의·果樹에
이철에 피여울 곳을 생각할뿐일세。
山査도피엇으리、언덕에찔레꽃도피엇으리。
입새(葉間)에숨어 것듯저버리는
『안즌방이』도 피엇으리
또 아마五月中旬에 가장일즉피어
또 이슬에젓고
여름저녁 버레를 웅웅모여드는
麝香薔薇도 그송이 맺첫으리。
(『키-쓰』의杜鵑賦中에서)

동생의 죽엄 女人의 배반、世人의 酷評病든 肺에 우는 슬픈『키-쓰』는 어느 어른 새벽、나무 아래서 쉬다가、들려 오는 杜鵑의 哀調에、幻想은 杜鵑과함께 樹陰새를 허맨것이다。

여름날 느진 저녁 보이지 안흔 雜草의 무거운 香氣를 마시며、숩 틈진『애기능』을 넘을때、나는 가끔 이 노래를 생각하며 내 길을 간다。

鄕土文化를 차저서 第三班 三陟篇 (52)

三陟行 (四) 天王神과烏金簪

崔益翰

겟지만 何如間 巫俗神祠는그 歷史的起源을 멀리 上古神俗에까지 溯及할수잇다。神祠就中城隍堂은 上古聖者、族長尊祀所인 同時에 巫覡은 當時神官의遺物이다。

어제 實祠中에有名한 三陟邑城隍堂을 參觀케되얏다。堂은 邑北鎭山葛夜山麓에 南向定立한 三間瓦屋이다 堂內北壁正中琉璃嵌框中에 少年、中年두女像을 그린畵幅이 걸려잇는데 案內者인故老의말은 이 두女像이 傳言에 母女或은 서누울케(三陟方言에 媤妹와兄妻。即시누이 오라부댁)라한다 冠은족도리고 衣裳은巫女服裝에 恰似하다。

이女像塑畵는 아마 母系時代의 遺風인듯하다 數日後未老面 天恩寺入口城隍堂의壁畵에서도 그主神이 女像인것을 發見하얏다。

右便卓上木櫃中神牌에는城隍之神이라썻고 左便卓上에는彩色紗帷울드리운 高가尺餘되는 神位二座가잇는데 이것은俗稱『태주』라한다 神卓上에는 馬像小鐵塊數個가잇스니 대개 城隍神은馬탄信念에서 나온供物이라한다。

그리고 釵形가튼 날근烏銅條하나가 卓上에 너혀잇기에筆者는 三陟神俗史上의 名物인 烏金簪이 얼른聯想되야 이것이 烏金簪의代用物이냐고 무른즉 案內者는 모른다고 대답할뿐이다。

神像의 左上壁에 邑城隍修繕記懸板이 걸려잇는데 全文如左。

日若稽古朝鮮城隍 各歷王中神聖王神。而四千餘年來 尊奉崇拜者。是也。然而惟我三陟邑城隍。則特以國費、給其祭需。又以官人奉其祭事矣。一自滄桑之後、旣存如無。而城隍建物及敷地、亦皆歸屬於國有。而今則幸復國有物還分之時。管下住民、自組守成會買其建物及敷地。修其城隍及神像。日新又日新。以保將之復舊者云爾。

守成會役員

會長兼監役 周觀熙(餘略)

會員 邑內里一同(下略)

×

異聞에도 나타난烏金簪으로부어이가

邑誌에依하면 近山祠는 近山(邑西南數里許。山形이 葛峯가틈으로 別稱葛峯山)上에 잇섯는데 往時供祭物인 烏金簪은 高麗太祖의 遺物이며 祠神은 天王神인데 俗稱大天王이다 每年五月端午前 三日

新刊紹介

◇[illegible] 第七十八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春光 六月號(內容) 朝鮮風俗[illegible] 閑話 [illegible] 編輯者가본 京城散步 [illegible] 朝鮮文壇側面史 畵家、彫刻家의모델座談會 世界大劇場街風景 都市對抗蹴球大會記 珍奇의世界動物園風景 支那語講座(第一回) 連作野談 金花八技(第四) 六月의創作 [illegible]外數篇 朝鮮特産品展覽會出品目錄 特輯附錄朝光타입스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四十錢 送料二錢五厘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

晴曇 (七)

車自鳴 作
崔根培 畵

서분이는 않물이 당출후가터 복거지자 그들은 퀼퀼대고 우서넘겻다 서분이는 북그럽는지 물을 재우치 걸어이고 휘하니 집으로 돌아간다。

『치서도 가을에 잔채할려고 이번에 대ー성수드라……』하는 놀림을 받는면서……서분이는 김훈장네 둘째딸로 금년 열여덟살난 파년한 처녀였다。늠늠하고 위풍잇는 김훈장을 닮아서 길숨한 얼굴에 이마가 널죽하고 수정가티 빗나는 큰눈이 어글어글하여 황홀하기 짝이없다 치서와 약혼한지는 김훈장이 유촌으로 이사해온 다음해엿지만 삼년이 지나도록 치서에 형편이 메우지못해 성례를 못합우고 잇는 처지다。

새우물터에서 퍼저나간 소문으로 유씨종족에서 알음알음 산다는 말이 좍 퍼젓다。

잿빗안개가튼 수심만이 저회하든 유씨종족에도 오래간만에 어설피나마 웃음이 깃드릴수잇섯다。

오정때가되여 유구장과 만석이는 앞산코숭이에서 기다리든 여러사람들에 끼여 만석이는 자전거(自轉車)를 끄을고 동리로 들어왓다。

유구장네 사랑으로 다들 모인다음에 유춘시가 먼첨 말허두를 낸다。

『마슴 만석이 잘나왓네。도지에대한말은 들엇겟지!』

『네ー 슈부께서 대강한 말슴은 들엇서요』

『그래 살의사가 도는가?』

「땅을 사면서지 읍내와 마산에는 뭐하러 갓나요?」

「원 저러케 답답하다니。우리 유촌에는 살돈이 업스니까 만석이나 원식이에게 맡해서 살래는거지!」

차권이처는 아직 미덥지 두한 얼굴을 여른다아지에 잇는딸을자랑사마 도독 덮어놋는다。

「흥 그러니까 조흔사람은 너하나밧게 업지!작년가을에 잔채를 꽉 할려다 장목사네 소작료도 모자라서 할수업시 건중한해를 넘기지안언! 이제그 땅을 살라치면 올가을에는 모ー든것이 풍성풍성할테니깐 아ー잔채를 할수잇잔어……」

「아이고 망측해라……」

「그래세요!」

만석이의 미지근한 대답에 방안사람들은 미구에 어떤 대답이 나올까하고 묵묵히 안젓다 만석이는 자기딴만 기다리는 여러사람에게 한참만에야 겨우 입을연다。

「나도 또바게 일이라 어리둥절 하웟다 현재는 도종수도 대놋치못햇스니 오늘은 땅이나 둘보고 들어가서 준비하도록하죠」

「땅이야 좋보나마나 적엣우리땅이니 별것잇겟나 그저 유춘을 살리는셈치고 꽉 사도록하게!」

「네ー아무튼 내힘자라는데까지는 해보죠!」

만석이의 이대답에 방안사람들은 한갓 안심햇다。

그리고 모두 별로나와서 눈섭이들이 주렁주렁 고여잇는는와 조그릇한 조그릇는 이를름에 다 뵈아다 때여서 한그루도 볼수업는 밧을 돌아보고와다 돌아오는길에 그들은 아무리생각해도 만석이맘이 데만한것가려서 열번백번 사주기를당부했다。

그러나 만석이는 논과 밧테대한 도지일네며 반작일네를모조리 물어보는 품이 말은안해도 그돈을 가지고 장사하는것과 땅사는데대한 리해를 따산하는것 가태서 그들은 약간실망했다。

『우리는 자네만 든든히 밋켓네!』

『가부간 내일 오후에 다시나오리다!』

하고 유춘시가 부락하는 말에

만석이는 대답하며 자전거를타고유내로 돌아갓다

『내일 현님이 또 읍내에 들어가서 잘권유하슈!저도 밤의사는 잇기에 땅을 나와밧지요!』

만석이가 들어간후 마당까에 모여서서 차권이가 유구장에게 하는말이다

『그럿치!내가 들어갓슬때도살의사가 잇서햇스니!』

『권유하는 한편 마사간 치서도 기다리기로하죠!』

그들은 만석이에게 확실한대답을 못듯자 원치이한려간 치서임이 궁금했다

★朱和하게 自然美로 발라지는 향연지 六色・各三八전

風鳥ホホ紅 (연지)

★二十時間以上오래가는 鮮力의입술연지 五色・各三五전

口紅 입술연지

各地파ー르藥店 化粧品店에잇슴

奏効如神

鷄冠蚊香 (게관모기향)

鷄冠蚊香의絶大한信用은 實로그効力에잇습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불이오래타고효력이 제일조흔 게관모기향 이라고차즈십시오

大阪キンチヨール本舗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昭和의常識

水道는稅金을半分만드리노코쓰면經濟[illegible] 파ー메도리가사못흘려

●學校의成績●은頭腦가第一이오 머리가무겁고 가려서마음대로工夫가 아니될時에는 ノーシン(노ー신)을 잡수시오 가볍고明快해저서 工夫가 절로됨니다 ◆頭腦 아모藥店에나 잇소◆

酒前酒後、惡醉擊攘에…… 仁丹

少年

六月號를보섯슴니까? 絶版되기전에 속히 注文하십시요 단十錢

本報叢島支局 本局三八八六

御愛用者 優待證附

專門醫家가全部推奬・國産優良粉乳

金太郎コナミルク (가루밀크)

最新噴霧式製法에依하야 [illegible] 微細 [illegible] 溶解가極히 容易합니다

◆

脂肪球가 細微한故로 消化吸收가 容易하고 第二次 [illegible] 良好합니다

◆

加熱溫度가 適當한故로 [illegible]의消化가 良好합니다

◆

科學的合理的處理에依한 故로 비타민含有量이 豐富합니다

(基本型無)

製造元・明治製菓株式會社

發賣元・株式會社マロン一商會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아지노모도로 양념하야 맛잇게된음식을 朝夕으로 남편에게밧드는것도 안해로써 남편에對한 사랑의한表現 입니다!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舗 株式會社 鈴木商店

東海北部線桑陰서 品質優秀한高嶺土、粘土發見
勿驚埋藏量六百萬噸

【元山】陶器 工業用耐火釜 [illegible] 乘用「다이루」等 其用途가 廣範한 高嶺土와耐火粘土가 東海北部線桑陰驛附近에서 發見되엿는데 그品質의 優秀함에는 總督府技師도 絶讚해마지안는다고한다。

그런대 前記高嶺土와 耐火粘土의埋藏量은 約六百萬噸에達하는터로 只今試掘中이나 不遠間大規模的工場을 設置할工作을 進行中인데 過去高麗時代와 李朝時代에도이近處에서 陶器를 製造한 痕跡이잇스며 只今試掘中에도 그時代의 遺物이 發掘된다고 한다

高嶺土와耐火粘土의빗갈은 淡黃白色이며 粘土의耐火度는 攝氏千七百十度이라는바 이것이將來朝鮮産業에 미치는 影響이 클것이라하야 그發展이 大端히期待된다 그런데 이優秀鑛區의 所有者는 元山府銘石洞金鎬殷氏라한다

輸入品防止코저 桑皮蒐集代用
完州郡率先實施

【全北支社發】全北道에서는 每年 北米産「펄프」를 輸入하야 業者의 便宜를 圖謀하고 잇섯는데 道産業課에서 이輸入防止策으로 各府郡 技術員會議를開催하고 代用品으로 桑皮를 使用하도록 奬勵指導하게 되엿는데 完州郡에서는 管內各面長을 招集하고 桑皮蒐集에 對하야奬勵指導를 努力中이다

春蠶掃立一束

光陽 全南光陽郡內의 今年度春蠶掃立狀況을보면 지난十日現在 配付總枚數 千四百二十三枚에 達하엿는데 此를昨年度의 三百十枚에 比하면 百十三枚의 增加로 이제各面別 配付掃立枚數는 다음과갓다 光陽面二八〇枚 鳳岡面一一〇枚 玉龍面一五四枚 骨若面一一四枚 玉谷面一五七枚 津上面一九一枚 津月面一八四枚 多鴨面二三三枚 計一、四二三枚

楊平 楊平郡은 元來蠶業의 産地로 春秋蠶을通하야 年年히掃立枚數가 相當히만허 一般農家에收繭의 副收入이잇다함은旣報한바이거니와 特히今年은[illegible]時局이만치 一般農民이生業報國을부르짓는이때이라 楊平郡農會에서는 數個月前부터全係員이出動하야 一般農家에桑田施肥와 養蠶에對한 認識을徹底히指導奬勵한結果 今年은春蠶掃立枚數가 四千餘枚를突破하야 昨年에比하야 五百餘枚가 增加되엿다한다

家庭副業의 豚種數十頭移入

【全北支社發】全北道扶安郡 當局에서는 家庭副業으로 良豚多量生産을 實現하기爲하야 白山面本德里에 種豚生産部落設定하고 近間日本內地로부터 豚種數十頭를 注文하고 積極的으로 奬勵指導하게 되엿다고한다

北支方面에 木浦海苔輸出漸加

【木浦】木浦名産乾海苔、味附海苔는 北支方面에서 好評이非常히노파 注文이 殺到하고잇는데 去九日、十一日木浦稅關을 經由하야 一百六十斤時價三百四十圓어치가 天津方面으로 輸出되엿다한다

全南松虫被害 約十五萬餘圓

【全南支社發】全南道山林課에서는 每年林野害虫驅除에 積極努力하고잇는데 松毛虫、五倍子蛹等의 被害가 第一만타한다 今年亦是南海岸一帶에 麗水、高興、順天、寶城、長興、康津、海南、珍島、莞島、靈岩、務安、濟州島等 十二個郡에 亘하야그面積約二十萬町步에 及하엿다는데 그被害는 十五萬圓에達하야 昨年度被害面積은 적으나 金額은相當히크다

忠北養魚家에 鯉卵、稚魚配布

【忠州】忠北道當局에서는 養魚奬勵를圖謀하는一方 養魚家의便宜를 圖謀하기爲하야 鎭海養魚場으로부터 鯉卵及稚魚를 斡旋配付하기로되엿는데 報恩、堤川、丹陽等三郡을 除外한 各郡의養魚家 個人二十六名 團體十一個所에서 鯉卵五十八萬八千五百粒 鯉魚의 稚魚十萬尾 가물치의稚魚五千尾의 配付請願이 잇서鯉卵十萬粒 鯉魚의稚魚八萬五千가물치稚魚二千尾를 配付하기로되여 魚卵及鯉稚魚는 五月下旬으로부터 六月下旬까지 가물치는 七月中에 全部配付할計畫이라고한다

三陟綿作擴充 將來擴充計畫은 耕地不足으로 不能

(三陟)三陟郡內의 旣定及 新規計畫에依한 綿作狀況을들으면 三陟은 아직까지도 不充分하야 昨年의 綿作面積廿町步而 新規計畫合하야 現在는 겨우四十餘町에不過한데 氣候와土質에는 適合하야 陸地綿(改良種)으로써 奬勵하면 一般農家에서도 더만흔收穫을할 것이라한다 昨年實際實驗에依한 同收穫量은 最高反當二〇〇斤이며 平均反當收穫高는 五〇斤으로 말이못되나 이는 主로 早霜의害이엿스니 이를 從作할수엇다만 問題되는 것은 元來가 農家總耕作面積이 적음으로 將來奬勵擴充計畫綿作面積五〇〇町步(昭和十七年以後까지의 擴充面積)는도저히 不可能치 안흔가하야 關係當局에서도 考慮中이바 이제現在各面別綿作面積을 보면 如左하고 郡의計畫面積은每年二十町步式增耕한다고한다

移入甘藷苗에 黑斑病을發見

【全北支社發】釜山植物檢查所에서는 數日前忠北及 全北에보내는 千葉、神奈川兩縣積出 甘藷苗二萬三千五百本을 檢查한바 警戒中의黑斑病에걸린것이잇는것을 發見하엿스므로 即時 返送手續을取하엿다고農林局에入報가잇섯는데 黑斑病罹病種苗가 來着한것은今回가最初로 農林局에서는 即時各植物檢查所에 嚴重히注意하라는通牒을發하엿다 그러나 오날까지移入된 種苗中에서는 罹病한 것이 하나도업섯다한다

朝鮮産工業資源特殊作物
國防資源으로 ② 亞麻栽培適合

現在朝鮮에 栽培되는 棉花의

品種을大別하면 在來棉과 陸地棉인데 在來棉은 六百年前부터 栽培되고잇든것으로南方은 全南으로부터 北方은 咸南平北에 널리栽培되고잇든것인데 明治卅七年에 陸地棉이드러온後로부터는 南朝鮮은 完全히陸地棉으로 變하고 在來棉은 現在西朝鮮地方으로 그栽培區域이 縮少되엿다

即農事試驗場에서 陸地棉의品種을 改良한結果 早熟性品種選出에 成功하야 陸地棉栽培可能區域을 顯著히 增加하야 現在에는 京畿道以南은 完全히 陸地棉으로 되엿슬뿐만 아니라江原道에서는 特殊地方을 除하고 거의全部가 陸地棉으로 變하고잇스며 黃海道及 平安南道에서도 陸地棉栽培者가 激增하는傾向에잇다 陸地棉은

在來棉에 比較하야 收穫이 만흘뿐아니라 反當可紡的價値에잇서도 大端히 相違가잇다 따러價格도 高價임으로 이를普及함은棉增産上 또는品質改善上 慶賀할바이요 棉花耕作者에 對하야도 만흔 利益을 주는것이다

朝鮮의 棉花栽培區域은 咸鏡南北兩道를 除하고 十一個道全部에 亘하엿는데 咸南에서도 棉花試作을 行케되여 二三年前부터 着手하엿든바 指導圃의 反當收益이 二三百斤을 收穫할수잇는點으로보아 土地의 選定과 技術의 研究에依하야 栽培할수 잇다는 豫測이 서게되여 今年度부터 一層 積極的試作計畫을 實行케되엿다

現在의 非常時局에 際會하야 朝鮮의 棉花가 着着生産을 增加하고잇는것은 國防上 或은貿易改善上 大端히 기뻐할바이오 將來期待할바가만타 最近 北支

棉花增産으로 朝鮮棉花不必要論을 唱導하는者잇스나 이는 日本의 國防上 貿易上 棉花의 重要性과 棉花의 本質及 北支의 實情을 잘 알지못하는者가 論하는바로 官民一致하야 一層朝鮮棉花를 增産함에 努力함은 銃後의 奉公을함이오 또當然한 責務이라고 思한다 最近五個年間의 棉花生産狀況을 數字的으로 表示하면 如左하다

年次	作付面積 陸地棉	作付面積 在來棉	作付面積 計	收穫高 陸地棉	收穫高 在來棉	收穫高 計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棉花以外의 纖維作物로서는 麻類가잇는데 朝鮮의 麻類中 工業資源으로서 重要한것은 亞麻와 苧麻이다

亞麻는 軍需品으로서 棉花와 同樣 不可欠한것으로 國防上極히 重要한 資源인데 我國에서는 北海道와 朝鮮에서 生産할뿐이다

亞麻는 그固有한 性質上 夏季는 比較的冷凉하여야한데 北朝鮮高地帶의 氣象狀態는 大端히 良好하야 이를栽培함이 適當한우에 北朝鮮高地는氣象이農業에 그리조치못하고 特히 現金을 收得할길이 업스므로亞麻를 農業組織에 編入함은 그地方의 農業經濟를 向上하는데에 大端히 조흠으로 昭和六年北朝鮮地方에서 亞麻를 試作하엿든바그 結果가相當히 조핫슴으로 七年 八年繼續하야 試作하엿더니 이제는 技術的으로 確信을 엇게되여 昭和九年부터는 奬勵키로되엿다

亞麻栽培는全然最初의試作인바

反當收量이 豫期의成績을 올리지못하나 그中에는反當千斤을 超過하는者적지안허每年面積의 擴張도 順調로進行하고 反當收量도 追年增加의趨勢에잇다 그리고 栽培區域은 大體로 標高八百米로부터 千米의 高所이나 千米以上의 場所에나 又는三百米程度의 地域에서도 研究한結果 栽培할수잇서 年年擴張하여왓다 今年植付面積約二千六百町步에 達할 豫測이엿스나 昭和十二年度에서는 面積二千四百餘町步、生産高 五百五十餘萬斤(六十六萬餘圓)에 達하엿다 昭和九年의 計畫은 十個年間 六千町步、生産二千四百萬斤을 目標로 栽培하여왓스나

今年부터는一層 이를擴充하야 昭和二十一年에 面積一萬二千町步 生産高四千八百萬斤으로 目標를곳치여 一層努力케되엿다 最近의 亞麻生産狀況은 如左하다

年次	作付反別(町)	收穫高(貫)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紙齡六千号 祝 革新五周年

光州

全羅南道商工奬勵館
商談の御用は先づ當舘へ
お土産には是非本道特産物を
電話五二四番

全羅南道

光州金曜會

光州府尹 難波照治

全羅南道水產會

全羅南道農會

元山

元山官署懇話會

元山 藤岡喜一郎

元山府銘石洞一二六 元山土酒 元山特酒 北鮮酒造株式會社

元山 東洋釀酒所

元山 樓氏高等女學校

金利集 安邊郡衙前

元山明星學院

元山米穀商組合

元山商工協會

元山府上里一洞九六 高等料理 時美齊 電話三八七番

元山府銘石洞 救命堂藥房 崔陽哲

咸南工業株式會社 元山府本町五丁目三三四 電話四〇七番 振替京城二七、一七八番

金景俊 元山

元山基督教青年會

元山繩叺消費組合 組合長 李仁浩 專務理事 盧紀萬 常務理事 南相沃

元山府上里一洞 內科外科小兒科皮膚科 松濤醫院 院長 崔載誠 電話一〇四九番

元山府南村洞 金鍾煥齒科醫院 金鍾煥

碑石製作所 禁煙劑一手販賣 元一社 元山府上里一洞一二三 振替京城二七五五九番

元山府銘石洞一四〇 元光社 主 康德三 電話五二六番

元山府本町四丁目一八 德永靴鞄店 主 崔永德 電話八二二番

元山府廳

元山商工會議所

元山土曜會

安邊智陵參奉 李賢圭 自宅安邊培花面泉陽里

元山穀物商組合

元山精米業組合

元山運送業組合

元山ゴム同業會
第一ゴム元山支店 ホテイゴム營業所 鮮滿ゴム商會 平安ゴム商會 京城ゴム出張所
京元ゴム工業所 大陸ゴム元山支店 三和ゴム出張所 正昌ゴム元山支店 世界ゴム元山支店

宣川

財團法人 宣川會館 電話一六〇番

宣川 信聖學校 電話一〇七番

宣川 私立保聖女學校 電話一五三番

財團法人 明信學校 電話一〇一番

宣川 朴龍雲 電話一四一番

宣川 曺仁奎 電話六二番

宣川 吳震泰 電話五九番

龜城郡梨峴洞龍山洞 龜宣鑛山 鑛主 趙相基 住宣川邑

宣川 金碩龍 電話二〇九番

宣川 吳鉉琦 電話一一二番

宣川 林京範

美東病院 電話一〇六番

桂林藥局 桂月華 電話一三六番

營業種目
鑛山用具 亞鉛引鐵線 平板浪板 建築鐵材 家具金物 各種ワイヤロープ 各種ポンプ
鑛油各種 朝鮮農具 網線洋釘 ストーブ セメント 金庫各種 諸機械修繕
漢城商會
電話一〇四番 略番(カン)又ハ(カ)
朝鮮平北宣川 田之京

宣川 文興善 電話一五二番

宣川 金迺興 電話一一七番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宣川出張所 所長 金在翼

社員招聘
一、年齡二十五歲以上經驗有無를不拘
一、月給三十圓以上
一、希望者要來談

碧城樓 電話一五七番

琴松館

國一館 電話三六番

宣川 郭麟模 電話一五四番

宣川 桂俊圻 電話一四四番

宣川 吳贊瓘

宣川 太陽商會 電話一二四番

宣川 宣吉商會 電話一二九番

人夫飢饉의惡影響 派生的犯罪續出

躍進業界에새로운憂鬱

【平南支社發】 피여사람이 부족한 까닭인가? 노동조건이 불리한까닭인가? 처처에 정정하여가는 인부부족난은 방금 하여가는 조선의광업 공업 교통에 큰지장을 주고잇거니와 이것은 동시에 측면(側面)으로는 여러가지의 범죄를낫코 또는 의외의방면에 동등하지안흔 영향을 끼치고잇다 종래의 실례로본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잇는것이고 일자리는 언제든지 부족한것가티서 일을하고싶고 돈을벌고하여야 의식(衣食)을 어더서 먹고살수잇는데 일하라하나 일자리가 업서서 고생하엿는데 작금양년이래로는 일터가 생기엿건만 일할사람이 부족하야 도리어 곤난을 밧게되엿스니 이것이 기이한현상이 아닐수업다 그러면 로동자들이 갑자기 거의다 업서저서 일하지안코도 살어갈수잇게되엿느냐하면 그런것은 업을것이며 차라리 일을 안할지언정 불리한조건미테서는 일할수업다고 버티는것이냐하면 그것도 또한 전연문제가 아니라고 할수는업을것이다 그러면 대체 그원인이 어대잇는것인가? 이것도 또한 적지아니한 사회문제의 하나가아니라고할수 업는사실이다 그뿐아니라 인부부족으로 말미암은 새로운범죄사실도 생기게된이때 더욱 그동향을 주시할필요가잇다

無許可로坑夫募集

手數料로每人四圓式

綻露되여平壤署에서科料處分

【平南支社發】 인부부족의시대색을 반영하는 일화(一話)—평양부도 평양군용조면(龍岳面)에잇는 용흥탄광(龍興炭坑)에도 인부가부족되여 적극적으로 모집중인데 그고장부 리영락(李榮鶴)씨는 어려운 한 내노동하는것보다 인부를 모집하고 그수당을 바더먹는편이 유리하겟다하여 지난십이일 평양에와서 허가도업시 대담하게도 대동강인도교우에 직히고서서 지나가는노동자를 모조리붓들고 잇는소리업는소리다하여가면서 기탄광으로 가기를권유하여 승낙만하면 소개료로한사람에게서 사원식을 바더먹고잇는것을 십칠일선교서원이 발견하고 취체하엿는데 이불만하여도 이십구명이나권유하는데 성공하엿섯다고하며 그는이십일 무허가소개영업의 취체규칙위반으로 과료십구원의 처분을바덧다

"苦力"密輸에憤慨

西本組에使用許可取消

【平南支社發】 강동군에서 공사중인 서선중앙철도(西鮮中央鐵道)공사장에 인부가너무부족하여 청부마튼 서본조(西本組)에서 안동현에서 지나인노동자를 양육십명을 몰래실어온 인부는시대다운 진기한밀수입사건에 대하여는 경찰당국은 대분개하여 서본조에 엄중한 설유를하고전기노동자는전부 다시 안동현으로 회송하라하야 경찰관감시하에 수송하엿슬뿐아니라 이미서본조에대하야 허가하엿든 이백륙십명의 지나인노동자사용인가도 이거때문에 취소하엿스므로 동공사장에는 일대곤경에 직면하게되엿다

人夫不足影響은 糞尿치는데까지

【平南支社發】 심각한평안남도의 인부난의 영향은 마침내평양부민에까지미처 이로인하여 명승평양이 분뇨(糞尿)평양으로 되여잇다는 구린소식—최근인부가 발녀 평양부위생과에서 쓰는변소치는 인부는 아모리 소리를 노피하여모집하여도 매일평균이십명은 부족한데 이로인하여부내의각변소는 더러운것이 산적하여 부민은 항상 불쾌와불편을 참지아니면 안되게되여잇는바 임금을 노피여서라도 조속히인부를 보충하여 깨끗한 평양으로 만들어주기를 부민은기대하고잇다

慶南道水產會 通常議員改選

【慶南支社發】 경남도수산회(道水產會)의 제오기 통상의원(通常議員) 선거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오전구시부터 부산 창원(昌原) 울산(蔚山) 통영(統營) 사천(泗川) 오개소에서 각기 무명투표로서 선거한결과 다음의십오명이 당선되엿다고한다

▲第一區 東萊 蔚山 機張漁業組合 方魚津漁業組合
▲第二區 釜山府 釜山漁業組合 伊藤正一 辛珙弘
▲第三區 昌原 鎭海漁業組合 李周完
▲第四區 統營 陳正律 金榮洙 坂倉浩
▲第五區 泗川 千炳權 金丸淑一
(以上漁業權者及漁業者)
西野爲作 山崎太一 濱田惟烈
(以上營業者)

特別會計獨立前提 水道集金制를實施

【慶北支社發】 대구부 수도계(水道係)에서는 부세확장에딸은 사무의확충을 하는동시에 장차수도(水道)특별회계독립을 전제로하야 종내의 수도료납금제를폐지하고 부민의편의를 보기위하야 집금제를 실시할것으로 방금 조례작성을 하는중이라고한다

山城鎭에三人强盜 四百餘圓强奪逃走

【山城鎭】 봉천성산성진서남문리 곡물잡화상만인사한금상점(奉天省山城鎭西南門裡穀物雜貨商滿人[illegible])에 [illegible] 와서 [illegible]하고 세시간동안이나 잇다가 구시[illegible] 현금사백여원과 다른물품을 강탈하고 도주하엿는데 방금산성진서에서는 범인수사에 최선의노력을하고잇는중이라한다

新義州에火災 二戶全燒

【新義州】 이십일오전세시반 부내미륵동(彌勒洞)구십구번지 김용석(金容錫)의집 부근에서 불이 일어나 주택일동이호(二戶)와창고일동을 전소한후 진화되엿는데 원인과손해액은 방금조사중이다

軟式野球大會 鳳山郡體育會主催

【沙里院】 오는이십칠일부터 이틀동안 봉산군체육회(鳳山郡體育會)주최로 제구회(第九回)야구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장소와 참가단체는 다음과가다

場所 初日A組沙公農校庭 B組東拓支店運動場 C組沙敎島小學校庭
第二日同
準決勝組 東拓支店運動場 沙公農校庭
決勝組 沙公農校庭
參加團體

集團自農村建設 基礎工作完成

瓮津理想鄉實現在邇

【海州】 기보—대정십이년이래 대재벌 암기(岩崎)씨가 옹진에서 경영하든 옹진군 관내잇는 정양농장(正陽農場)의 소유경작지 약륙천여정보를 그농장주가 도당국의방침인 자작농지설정계획(自作農地設定計劃)에공명하야 시가 약삼십만원의 토지를 십이만원에 평가하여서 도당국에 그설정사업을 일임하엿다함은 당시 기보한바어니와 도당국에서는 고암기씨의 유지를 바더 전조선을 통하야 그유례에달하는 조선제일의 집단자작농촌을 설정키로 결정하고 지난사월삼십일 길전소작관(吉田小作官)이 길전기수(吉田技手) 상원속(上原屬)을 대동하고 농장현지에 출장하야 이래 일개월간 그농장에 머물러서 각필(各筆)의 등급사정(等級査定)과 및 소작인답 소작면적(小作面積)을조사하는등 자작농설정의 기본공작을 마치고 요지음도라왓다 그리하야 다시 매수와및 차입자금(借入資金)등에 관하야 재이단공작에 도리가는동시 장래에잇서서의 자작농부락의 경영지도에관한 구체적 시설방책에 대하야 신중히 대책을 고구중인데 전조선을 통하여 처음으로 시험하는이만큼 총독부당국에서도 가장중요시하는터로 그동안 두번씩이나 시찰을하려고 내도하는등 그성과가 각방면의 주목을끌고잇다

助成機關結成 農組와助成會等

既報 옹진(甕津)에잇는 정양농장(正陽農場)주 암기씨간의 호의에의하여 황해도 당국에서 조선제일의 집단자작농촌 건설준동에매진하는등 그기본공작도완성되여 이상적농촌의 실현이머지아니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도당국에서는 명실이합치되는 〃리상적자작농집단부락〃을건설하여 농업경제의 근자력을삼으라함은 물론이요 자작농창정사업의 근본정신에 어그러짐이업도록하려고 여러가지로부심중이라한다
즉 그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도당국으로서 직접 여러가지각도에서 지도에당할것은 물론이요 먼저 서로의협력에의한 향상을기하기위하여 자작농조합(自作農組合)을 결성하고 그조합을 중심으로서 동조합의 경영사업(事業)을 도울 동조합의 협력기관으로서 [illegible] 사업조성회(事業助成會)를 조직하야 적당한 보조를 지도자로하여목적달성에 그만전을기할 방침이라한다

1、[illegible] 2、[illegible] 3、[illegible] 5、[illegible] 6、[illegible] 7、[illegible] 8、비구도리텔

【全北支社發】 전주역(全州驛)에 [illegible] (驛上)에서 [illegible] 개최하기로하엿다고한다

煤煙地獄馬洞을차저서

農作物受害는置外 呼吸困難조차直感

設計粗漏가基本禍根

本社特派員 金炯晚記

근대공업의발달과 순진한농민파의 알륵의표본—천야(淺野)세멘트회사의부근 사면십여리(이하조선리수)사이에 거주하는 사백여호 이천여농민들이 세멘트회사의 두연(煙突)에서 내여뿜는 매연(煤煙)으로 생활선과 생명선에중대한 위협을 늣기게되여 회사에항하여 공사중지를 주창하다가 뜻대로되지안흠으로 사백여호의 이주(移住)를 결정하는동시에 이전비(移轉費)대호오백원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엿스나 이것마저 거절을당하자양방이대치하여 형세가험악하게되자 봉산군수(鳳山郡守)와 사리원서장(沙里院署長)이협력조정하여 위로금(慰勞金)이라는명목으로 이십만원을 주민측에서요구햇슴에대하여 겨우 일만원을회사에서 지출할것을 약속하고이일만원을주민측에 이야기햇스나 일만원을가지고 사백호에 분배하면 겨우이십오원식이나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이전을 할수업다하여 대표[illegible] 홍규(洪奎主)외 수명을 선정하여 도청과 총독부에 파견진정해보앗섯스나 각요로당국에서는현지(現地)에서해결하라는 답변을 해줌뿐이므로 대표들이도라와 이런뜻의보고를한결과 흥분한 주민들은회사지배인(支配人)을 면회하고 직접담판을하고저 심수차의방문을햇섯다 그러나 종시면회를 사절할뿐 아니라 사무실이부에는 회사에 관계업는사람은 누구나 드리오지도말나는 경고의 쿨구까지써부티게되자 극도로 흥분한끄테 십구일오후한시경 소낙비가 퍼붓는것도 문제시하지안코 부녀와 어린이까지섞긴 일백사십명군중이 회사를습격하야 일대소동을 이르킨남어지 주민측에 오십여명의 검속자까지내인 근래의 불상사를이르켯다함은 그동안 본보지상에 보도한바인것 그러면 대체천야세멘트회사의규모와 설비는어떠하며 련접지주민이밧는 피해정도는 얼마나되며 여기에대한 각관계자와 관심을가진인사들은 엇더케 이문제를보고잇는가를 기자가 답사한바에따라 또는 견문한바에따라서 상세히여기에 적어보기로 한다

◇

천야(淺野)세멘트회사는 내지에는 도처에공장을 가지고잇스나 조선에서는 마동(馬洞)공장이 이회사계통 공장으로서는 처음인동시에 강동군승호리(江東郡勝湖里)의 소야전(小野田) 해주항(海州港)의 조선세멘트회사(朝鮮세멘트會社)와 대항하야 소화십일년 칠월삼십일에 창립되엿는데 위치는 사리원(沙里院)에서 동남방(東南方)으로 이십오리상거되는 봉산군토성면토성리(土城面土城里) 그리고토성면무정리(鳳山郡土城面武井里)지금으로부터 일천팔백여년전 신라 경덕왕(新羅景德王)이성읍년에 축조햇다고전하는 휴류성지(鵂鶹城址)가잇는 봉산군의 중앙부가되는곳에다가 자본금 삼백만원의 [illegible] 공장설치가잇엇는데 [illegible] 녹파산(綠坡山)을 중심으로 [illegible] 연해잇는 [illegible] 석회암(石灰岩)으로 형성되어 세멘트원료(原料)는 부근산에잇는점토(粘土)와가티 삼사십년을 [illegible] 매장량이라한다 공장설치공작이잇난 이회사에서는 작년십월에 [illegible] 작업을개시하야 [illegible] 매일 일만일천대(袋)의세멘트를생산하고잇서 세기(世紀)의 파도를타고넘는 사계의총아가 되는동시에 상당한 리익을내고잇스나 공장건설후 살을 급히진행한것과 이공장의 건축에잇서서 [illegible] 또는 방연(防煙)내지방매(防煤)의 장치를 전연불각하기때문에 두개의 큰연돌에서 [illegible] 매연을 [illegible] 서 [illegible] 석탄(石炭)? 점토(粘土) [illegible] 여 농민의 [illegible] 생리적(生理的)이나 정신적(精神的)으로 밧는고통이 더욱크게 되엿다

이런사실은 기자가 손수마동주민들을 [illegible] 의곤란을 직감하엿다 [illegible] 는 조금도 과장이업는 [illegible] 이 [illegible] 나 농민의 [illegible] 번곤해가 [illegible] 도 [illegible] 며 농민의 피해는 [illegible] 이안이며 [illegible] 매년의해 는천봉작에 밋치게될것은 의심할여지가업다 (寫眞은 問題의 淺野세멘트(馬洞工場))

어른을등처먹는 少年뿌로커逮捕

【慶南支社發】 불과열일곱살박게 되지안흔 어린것이 감쪽가티어른들을속이여 횡령、사기、절도등범죄를 감행하고 십팔일부산서원에게 체포된사건이잇다 그소년은 부내초량정(草梁町)삼정목윤봉기(尹鳳基)(一七)로서 부내로돌아다니면서 역전(驛前)부근에배회하고잇든 농민들을속이여 일본내지로 보내어준다하고 이십여원의 금전을편취한것을 비롯하야 가진사기를 감행하는다 먹지 부내장수통(長手通)고마야(コマヤ)오복점(吳服店)에 시가삼백여원의 물품을 절취한후부내모음식점에 숨어잇든것을 부산서복정반(福井班)형사에게 그가티 체포된것이라한다

巧妙한賭博法으로 多數勞働者搾取

二年間에去來金額이卄萬圓

【咸南支社發】 기보=함흥경찰서에 일망타진된 함주군하기천면(下岐川面)의 대도박단은 경찰서의 취조에따라서 점점그놀라운죄악이 폭로되야 세상의주목을끌고잇다 그들은 벌써수년전부터 각지공사장을 배경으로삼고서 수만흔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서 그들의어든 로임을녀흔 주머니를 들추어내는 악랄한도박단이라고한다 방금 이도박단은 일제검거와 동시에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공사가 필하게되엇스므로 그본거를 허천강(虛川江)수전공사장으로 옮겨버렷다고 하는데 이대도박단의주범은 모두 단천(端川)풍산(豐山)지방으로 옴겨종적을감추어 버렷다고한다

이도박단은 삼십육패(三十六牌) 속칭〃지-하-〃(一八)도박이라는것으로서 본래는지나(支那)로부터 전하야온도박으로 그조직은 소위〃오야〃(親)라는 자주(資本)격의 인물이 약오륙명이 계산원(計算員)이잇스며 다시그아래로 운송(運送)이라는이름으로 소위권유원(勸誘員)이 약삼십명가량잇서 각공사장에 진출하야 노동자들의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박가입을권유한다고한다

이운송들이 권유하는 법이극히묘하야 례를들면 당신지난밤 꿈이 무엇이냐고 뭇고서 그런꿈을 꾸엇스면 확실히 오늘은 버을수 잇다고하야 로동자들의 단순한 마음을 끄은다고 한다

특히 이도박은 로동자들에게 오늘은 무슨 패(牌)에 얼마부처다고 일러주기만하면 그뒤에는 로동자들은 가지안하도 운송들이 모두 대리로하야 그결과를 다시 로동자들에게 전하야주며 그부친 패가마젓스면 그부친액의 삼십배식 〃오야〃로부터밧게되고 그러나 운송은 그대가의 보수를 대인액의 이할가량식을바더먹는다 그러나 이상한것은운송에게일할이하야도 그운송하고〃오야〃와는 절대로모른체하지 못하게되야잇스므로 로동자들이 속어너머지는안흐나 이기구로넘면〃오야〃는 절대손실을 보지안흐며 로동자들은 극소수이외에는 대개일케된다고 한다

이번 이도박단은 약이년전부터 매일이회이상은 반드시개장하얏스며 일회에 최하일백오십원의 판계금액이잇게되므로 이년동안 이도박장에옴든돈만 물경 이십만원의 거액에달한다고 한다

씀씀한공사장에서 그날그날의 단순한생활을하야가는 로동자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오락기관이 되야잇다고한다는데 그러나 그바면에 [illegible] 풍사움이 [illegible] 케되는 가정불미한 사태를 비저내고잇스므로 금후 각공사장의 어순한거리에출시고다니는 이들 도박단의 소탕이 로동자들의 생활을위하야 절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林巨正

長篇小說 【108】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 (七十四)

꺽정이가 리봉학이 배돌석이 길막봉이 세사람을 다리고 밤에 오간수구녕으로 성안에 들어가서 전옥을 깨치고 세여편네와 두축개를 끄내오라고 결심하고 구월 초사흔날 장수원에 모혀서 거사하라고 계획을 세웟다。모힐처소를 장수원으로 정한것은 전번 도망하야나온길을 뒤쫘 돌어갈 생각이요 모힐날짜를 구월초사흔날로 정한것은 황천왕동이 청석골내왕에 떠나는날까지처서 사흘너머 쌍복산서 장수원을 가는데 나흘 넉넉 낭패업도록 넉넉히 잡은셈이엇다 꺽정이가 황천왕동이를 떠나보낸뒤 리봉학이를 보고 전옥깨칠 계획을 말하니 리봉학이가 한참 생각하야 보다가

『어려운걸이요』

하고 고개를 가로흔들엇다。

『다른 어려운것은 다 그만두고 일을해보면 어렵지 안켓섭세 생각할때 아주쉬울것가튼일두 하면 되거든 그

한번 당해보든 데로 당한번이거니 생각하야 [illegible] 대면하야다 그러나 사랑하는 [illegible] 와 가치 [illegible] 서 어떤아들의 제물을 [illegible] 로 나와다。

황천왕동이가 떠나가지 사흘만에 되돌아와서 보고들은 청석골 대소사를 꺽정이에게 이야기하는데 가든날 노밤이까닭으로 한바탕 난리꾸민 이야기를 듯고온대로 다 옮기고나서

『노밤이는 형님께서 오서서 조처하실때까지 할로 나다니지못하두룩 가처두랍니다구 일르구 왓습니다』

하고 말하니

『잘 햇다』

하고 꺽정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얏다。

황천왕동이 돌아오든 이튼날 꺽정이가 리봉학이와가티 장수원길을 떠나는데 황천왕동이는 안식구들을 보호하고 잇스라고 쌍복산에 머물러두고 선물로먹와 곽오동이는 무기와 길양식을 두짐 만들어서 지워가지고 러키에 무슨일이든지 하는게 장사라니』

『십만장안 한복판에잇는 전옥을 단 넷이 가서 어떠케 파옥한닛가 아니래두 안될일갓습니다』

『그럼 메치 가야 되겟나? 한 사십명 가면 될것 가튼가?』

『글세요 제생각에는 삼사십명을 가지구두 안될것 가튼걸이요』

『그러케 숫제 우리 네시만 가잔말이야 일이 여의하면 다시더말할것 업구 혹시 여의치못하드래두 피신할때 가루거치는것이 업서 조탄 말이지』

『우리 넷만이라두 마치잘 피신하게될는지 몰으겟습니다』

『겁이나서 못가겟나』

『아닙니다 아무리 사지(死地)라두 형님이 가자가시는데 실탄말을 하겟습니까 그러란 말슴이지』

『그럼 넘려말구 나만 밋구따라오란말이야』

『서종사는 어째 오라섯습니까』

『파옥하는데 혹 조흔꾀가잇나 물어보러구 오라구해네』

『아무리 꾀가 만키루서니 원악 되기어려운일을 쉽게되두록 만들수야 잇겟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것을 동겨만주드래두 도움이 될수 잇지안흔가』

『그거야 그러치요』

이봉학이는 꺽정이의 계획을 섶지고 불로 기어드는것과가튼 무모한일로 알지마는 언제든지 다리고 떠나 쌍복산서 장수원까지 삼백이십여리길에 첫날 백리 다음날 백리 이틀에 이백리를 걸어버리고 남아지 일백이십여리를 이틀에 별러오까닭에 쌍복산을 떠난지 나흘되던날 점심때 장수원 원집에와서 청석골서 오는일행을 반나절동안 기다리엇다 배돌석이 길막봉이 서림이 세사람이 다저녁때 겨우 대어와서 저녁전에는 이야기할사이도 별로 업섯다 저녁들을 먹은뒤에 꺽정이가 신불출이와 곽오동이더러 방문밧게 나가서 원주인도 가까이 오지못하도록 금하라하고 청석골서온 세사람에게 계획을 이야기하야 들리니 길막봉이는 당장 전옥문을 때려부실것가티 주먹을 부르쥐며 조타고 말하고 배돌석이는 쭈매통을 만히 가지고오지아니하야 내일 준비해야하겟다고 말하고 서림이는 아무말도 안하고 눈만 까막까막하얏다。

『서종사는 조흔꾀나 생각해서 말슴하우』

『글세올시다 조흔계책이잇슬른지 생각해봐야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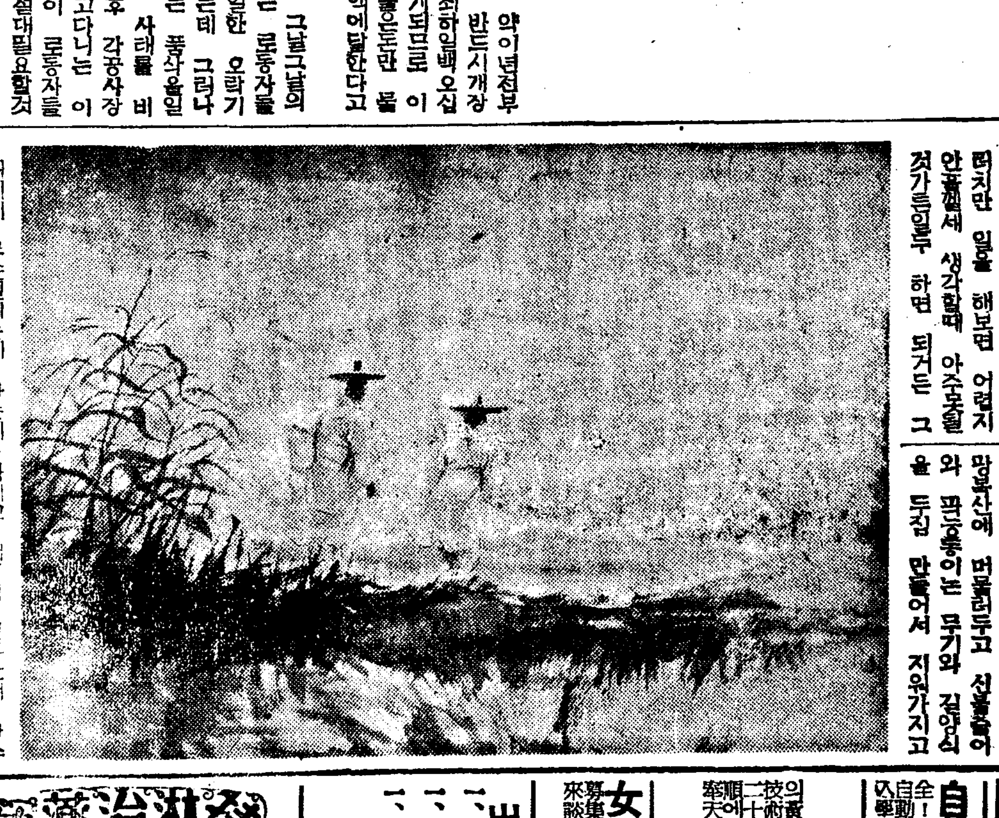
서림이가 한동안 천정도 치어다보고 자리도 나려다보고하다가 헛기침을 한두번하고 꺽정이를 바라보고

『지금 제생각엔 상중하 세가지계책이 잇습니다』

하고 말하야

『세가지가 뭐뭐요』

하고 꺽정이가 물엇다。



治淋特効藥 治淋特効藥 治淋特効藥 治淋特効藥

豫言

治淋特効劑 G-U(지유)사이드는 그有効成分이 今世紀最大의發見으로서 實로稀世의名藥인바 特히淋疾이世界的으로蔓延되나 百藥이無効하야 治療할바를 모르는此際에 이藥이 出現하자 果然全世界에 一大센세이순을 惹起하엿습니다。

G-U(지유)사이드가 發賣된지不過數個月間 服用後數日에 急慢性을不拘하고 根治한분이 激增되어 社會는나날이明朗化하고 G-U(지유)사이드의 名聲은 漸益高揚됩니다。

이에豫言합니다。今後G-U(지유)사이드의 名聲을부러워하고 이것을利用하려는 模倣治淋藥이簇出하야 G-U(지유)사이드의理論 或은廣告의文案·版形及輪廓 又는包裝의模樣이나 容器等中에서 무엇이든지模倣한것이 반드시잇슬터이오니 諸位는恒常G-U(지유)사이드에 注意하시여 模倣品에迷惑되심이업기를바라나이다。

朝報案內

自動車 運轉手養成 學費低廉! 設備完! 全!最高權威인朝鮮總督認可 京城 自動車學校(京城府太平通) 入學則送呈、來問歡迎

寫眞技術者 의黃金時代가도라왓다 北支行寫眞技術者十名至急養成學費實習費合二十一圓入學期五月末日까지入學順에依함(詳報要二分郵票) 奉天小西邊門裡斗母宮 (國際寫眞學院 滿洲測量學院)

女子內勤 事務員及男子外勤記者數名募集、希望者履歷書持參至急本人來談 京城麗雲町九六ノ三 中央商工研聲社

出張所長招聘
一、二十五歲以上ノ青年活動家ヲ多數求ム
一、無診査慈惠保險申込殺到ノ爲メ業務大擴張
一、希望者履歷書持參來社アリタシ
太平生命京城支社 京城府黃金町二ノ一七三

大好評 「女性」 六月號 發賣中!!

經濟解說
纖維製品騰貴 그特殊樣相은어떠한가
物價高와그對策 ㉛

我國工業原料及製品價格騰貴의 特殊性은 前述과가튼데 그樣相은 我國重工業發展의 主要支柱가된 纖維工業이 原料輸入에 制限을受하고 原料不足이 惹起한 製品高의 結果 製品輸出에 衰退를 招來하야 最近 朝野를 憂慮하야 그對策에 苦心하고잇는것은 周知의일이다. 纖維工業製品이 海外로輸出되어 金으로써 我國國防充實에 必要한 物資의 輸入原動力이되는 性質은 戰時經濟體制의 移行과共히 去益重要性을 增加하는中이다。依하야 纖維工業原料의輸入이 왜

制限 되어야만하나 그制限은 어느程度까지行할가를 究明하고서 그로부터생기는 價格變動의必然性을檢討한다。我國輸出產業하여는 軍需工業擴充의將來性으로도 緊要한일이겟다。

自由主義經濟時代末期의 貿易統制의形態는 主로써關稅政策이엇다。關稅障壁에依한 外國品의輸入防遏로 國內產業의 保護振興을圖하고 歐洲大戰에 依한 生產設備過剩이 惹起한 世界的不況에서脫却코저한것이엇다。이方法은 各國이모두行케되면 世界市場은 더욱狹隘해저서 他國으로부터의 輸入防遏에成功하더래도 結局自國의 輸出貿易을 萎縮케하는 矛盾을

內包 하고잇는데 그런줄을 알면서도 各國은 一般的으로 如斯한自殺的 終局을目標로 가는길을걸어왓든것이다。이矛盾對策으로써 警戒된것우 經濟를結成하야 自國에有利한 市場保有를 計畫하엿섯지만 結局이 自繩自縛的인 不況打開策은 昭和五年의 世界恐慌을 招來하고 各國의貿易對策도四圍의國際情勢의 推移에伴하야 新形態를 取케된것이다。

世界恐慌과 前後하야 各國의金本位制放棄가 行하고 國內物價를 釣上하야 國內產業의消極策을하는 同時에 爲替低落에依하야 自國의商品을海外로 低價로써 競賣코저하는 窮策『덤핑』이 流行키시작하자 關稅障壁만으로는 效果를

期待 할수업게되엇다。新情勢에對應키爲하야 考案된것이 輸入配定制이오 求償貿易制이다。

輸入配定은 一國이 輸入數量을制限하고 그制限된數量의範圍內에서 輸出國인 各國別로 配定하자는것인데 이配定額을決定함에際하야 對方經濟의時價를 相結하야 對方國內의 國際收支의 緊策이企圖된것은勿論이다 求償貿易制는 一國과 一國間의 輸出入額을均衡케하고저하는것이다。

現在我國은 原料를 海外로부터 輸入하고 製品으로써어 것을 再次海外에 輸出하는特質을가지고잇는데

我國 의製品輸入을 禁止코저하는나라에서는 輸入配定制를 强制하고 原料輸出을 維持코저하는 나라로부터는 求償貿易制를 要求하야 어째든 我國의輸出을 制約하고잇다。다만我國이 外國品의 輸出에있어서는 自由를기할수가잇는 [illegible] 이다。

昭和十一年末頃當時의 先低不安과 輸入關稅引上策이 繼續되자 莫大한 輸入數量輸入이行하고 我國輸入貿易의 極度的增額을 招來하엿스므로 昭和十二年一月八日의 爲替管理强化令이 公布實施되엇다。

以上 이日支事變勃發直前의我國의 貿易事情이엇다 事變勃發에伴하야我國의모든物資의 供給이軍需工業品第一主義下에 統制되고貿易關係로는 輸入에잇서서 軍需工業品第一主義를 徹底케하기爲하야 그購入資金捻出策으로써 纖維工業品을中心으로한 輸出의振興을 計劃케되엇다。

我國의 輸出品은 高率關稅外에 輸入配定制에依하야 그總額이 壓迫되고 求償貿易制의 制約을受하고잇는 이求償貿易制에 對하야서는 理論的으로는何如間에 現在我國의關係하는求償貿易制는 決코 我國의輸出을 有利하게 振興케하는것이아니것은 事實이다。卽

求償 貿易制가 嚴正한 均衡의 大原則이되여 一對一의 貿易이 正確하게 行해진다면 日本과가티 年年輸入超過인나라는 移轉度의 輸入의 增加에 依하야 輸出伸展은 될지언정 이때문에 日本의輸出貿易縮減을招來할까닭이 업는일이지만 이것은 理論이오 적어도今日까지 日本과 各國間에 맺어진 求償貿易制에關한限 價格上에 잇서서의 一對一으로實現되지안햇다。

그뿐아니라 昔日의 例로써는昭和九年一月五日에 成立된 日印通商協定下의 印綿百五十萬俵 輸入에對한 我綿布四億碼輸出의 求償關係로는 價格으로보면 一對三이란 日本側의 極端한 輸入超過를 承認하는 結果로되고 그後數字上의 部分的修正이 잇섯스나 依然히

跛行 的求償關係는 그대로 繼續하엿다。이것은 [illegible] 하예이나 輸求償制의 採用에 잇서서도 모두 價格上의 一對一이어 實現되어잇지안타。

이미 出發點에잇서서 이러한 不利를 바든 我輸出貿易은 日支事變後, 從來에 殘倍의 能大한 軍需工業品及右原料의 輸入資金調達의 大務를 갓게되엇다。金現送에 限度가잇고 爲替의 一段低에 依한 輸出伸張도 可望이업스며 新市場開拓도 餘地가적은 今日에잇서서 여간한 方法으로는 이要求에 應할수업는것은 當然하다。

이에잇서서 我國의 貿易政策은 戰時體制에서 一步를 進하야

貿易 統制의 形態에까지 强化되엇다。從하야 貿易그自體上의 對策은 自由外交時代의國際貸借改善을爲하야 行하는 貿易統制와는그 軌를 달리하야 貿適의 貿易統制가 輸入制限對策에 置重하야 對하야 我國에서 現在 取코잇는 貿易統制는 輸入制限과 共히 輸出의 積極的振興을 圖하야 例컨대 昭和十二年의 [illegible]

戰時 下我國輸出貿易의 大任 [illegible] 我國輸入總額의 三、四割을 占하고 또이것을 原料로한 製品輸出이 亦是三、四割을 點하는 纖維工業이다。마하야 此纖維工業原料의 特殊性及 價格變化에 依한 纖維工業製品의 價格及其製品의 價格에對하야 今後推移를 察知할수잇슬것이다

—계속—

金增產現行政策에 再檢討論擡頭!
既設鑛山의擴充增產보다도 探鑛新開拓이極必要

支那事變下에잇서 我國의對外決濟力을 增强하라고 政府는 金의積極的增產을 圖하는中이다 金增產에依하야 政府又는中央銀行의買上高가增加하면 海外로보내는 金現送力이强化되므로 이것을適하야 爲替市勢의維持, 低落阻止乃至 引上과가튼 爲替操縱을할수잇서 現下 我國에잇서 이點이 中樞題目으로되어잇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產金五個年計畫下에 金增產을 圖謀코저 日本產金振興株式會社法案이 이미 前議會에서 通過되어 會社創立이 不遠하엿스며 會社設立前 이미 그資金의 一部를 朝鮮서도 融通코잇는터인데 政府의 이金增產政策이라것은말하자면 大金山本位의 資金融通을目的으로한것이오 總督府의方針도가라야 朝鮮의 中小金山은 何等의恩澤이 업슬뿐아니라 睡眠鑛山의 許可取消乃至는 許多한睡眠鑛山은個中에는 利金을 目的삼는 所謂惡德『뿌로카』的인것도 不無하지만 그 大部分은 探鑛費가 업서못하고 잇는 處地인데 政府의 金增產政策이 現在와가티 大金山에依한 探掘增大에만잇고 無鑛脈한 未開拓의探鑛을 不顧한다면 그는國策上遺憾이라아니할수업는것이다 새로探鑛하는것이 金增產의 目的遂行上 그效果가 클것은 다시말할것도업는일이다

中小鑛業救濟할 大探鑛會社提唱
朝鮮鑛業會總會座談會에서
唯一의活路는이方法뿐

現在當局에서 探鑛費를 補助코잇기는하나 그것은 補助를받지 아니해도 해갈만한것이오 정말 補助를 밧어야할 鑛業家는이에 除外되어잇는 實情인데 一鑛區를 探鑛하랴면 적어도 五萬圓이잇서야하는데 그것이업서 睡眠鑛이되고잇는터인바 이中小鑛業者의 處地는 中小商工業者問題와 꼭가타야 實力이업고 擔保가업스니 金融할수업다는것이나 이는 卽金融이 方途가업기때문에 中小鑛業家가 살수업게되는 結果로된다 이에 잇서무슨方法이 잇서야 하겟는데二十日에 京城 朝鮮『빌딩』에서 열린 第二十一次 朝鮮鑛業會 總會의 座談會席上 某會員으로부터 大探鑛會社案이 提唱되어注目되엇는바 그論旨의 大要는如左하다

二千萬圓의 半官半民의 探鑛會社를 設立하야 四倍의起債能力을 주고 그資金으로 一千鑛區를 探鑛케하면 그中十分一이 成果되어도 큰收穫일것이다 이會社에 對하야서는 國策會社로서 政府에서 配當을 保障하고 損失을 補償케하면 될것으로 이러케하야探鑛된後 產金振興會社로부터 融資를 바드면 理想일것이다

大體 以上가튼 提唱인바 이것은政府의產金政策의 一大轉換을 意味하는것으로 容易히 實現될 것갓지아니하나 이러한政策이라도實行되지안는限萬全한積極的인 金增產도 期待가크기를 바랄수업고從하야 中小鑛業者도 活路를 어들수업슬것이라고한다

北支綜合見本市 七月天津서開催

滿洲國輸入組合主催 第五回 北支綜合見本市는 來七月七日부터 三日間天津에開催될豫定인데 內地로부터의 參加者는 大阪의 百四名을 筆頭로 東京四十五人 神奈川 三十七人 廣島三十人이며 朝鮮으로부터는 只今豫想으로는 二十四人이 參加할듯하다

洋灰限產 五分緩和內定

朝鮮의 次期洋灰限產率緩和에 對하야서는 需要의特殊事情도잇서 關係者間에 協議中인데 內地의 六、七、八月의 操短率이 二分五厘緩和로 決定되엇스므로 朝鮮으로서도이것과 步調를가티 할必要가잇서서 大體五分의緩和로 內定한듯하다 卽 現行四割七分 操短이므로四割二分으로될것이다 四割二分으로의 緩和에 依하야 八月末의 朝鮮內在庫는 十一萬噸이되리라한다

朝鮮商議總會 六月二十日頃開催

朝鮮商議의 第七回定時總會는 來六月二十日頃 京城商議에서開催할豫定인데 右總會에의 各商議의提案은 五月二十五日까지에 모이기로되엇다 京城商議에서는 二十二日午後四時부터 役員會를 開하고 右總會提出議案附議決定하리라한다

"農村景氣好調"
金組의資金過剩狀態

今年의農村景氣는 時局에依한 好影響 勞銀의撒布 農作米高에 依하야 例年에업는 好調를보이고 잇는바 이것은 金融組合의 資金關係에 如實히나타낫다 卽金組聯合會의 資金은 例年四月부터 六月에亘하야 小口資金의需要가 增大되고 十月頃부터 回收期에 入하는것이 常例이나今年은 現在에至하야도 資金의需要가 僅微한터로 反對로 金組의預金에對한 預金은 二千萬圓에 達한다 卽例年지금쯤은 殖銀의金組에對한 貸越이二千五百萬圓에 達한것에 比하면 四五千萬圓의 資金餘裕를 生한터로서 今後肥料資金其他 資金需要가 잇드래도 만치아켓고金融의緩慢은 農村好景氣에 拍車를 加하리라한다

工業者大會

朝鮮工業協會에서는 來二十四日正午부터 同所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고 六月二十三、四兩日에 亘하야 仁川에서 開催될 第九回定時總會에 提出할議案其他件에 對하야 協議할터인데 同大會는 機會로 第五回全朝鮮工業者大會를 開催할豫定이라한다

資本金五百萬圓의 國策水產會社全貌
朝鮮과支那海全般에亘하야 漁撈加工處理를行해

支那海로 水產進出을 目標한朝鮮內의 水產國策機關으로서 新設計畫中인 朝鮮水產開發會社는 目下水產團體首腦部間에 具體案을 硏究中인데 大體 本月末까지에 成案을 만들고 資金調整法에依한 認可申請을 하게되엇다 現在까지에 明白히된 新會社의 全貌는如左하다

一、朝鮮水產開發會社라 稱하고 朝鮮及 支那海全般에亘한 漁撈加工處理를함
一、新會社의 資本金은 一千萬圓豫定이엇스나 內地와의 聯盟連絡關係로 五百萬圓程度로 縮少함
一、本社를京城에 支店을 濟津 靑島 上海에 加工場을 海州에新設함

鮮銀米資 回收順調

鮮銀의 四月末現在各支店米穀資金貸出高는 約五千三百萬圓으로 前月末에比하야 約一千萬圓이減少되엇스나 前年同期에比하면 約二千一百萬圓의 激增으로 約一倍以上의增加이다 十一月末以降의 月別殘高는如左하야 三月末殘高六千三百萬圓을 最高로하고잇다(單位千圓)

十一月末日	四八、三二五
十二月末日	五五、七六八
一月末日	五九、五六七
二月末日	五六、三六七
三月末日	六三、三四八
四月末日	五二、七〇一

朝郵傭船

朝鮮郵船에서는 西海岸阪神間의 定期受渡米를輸送키爲하야 日產汽船天陵丸(三〇〇〇噸)을 短期傭船하야 長崎에서受取하고 群山大阪間을 一航海한다고

暴利取締範圍擴大
生活必需品騰貴를抑壓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物價委員會를 活用하야 特히 生活必需品의 騰貴抑壓을 꾀하고저 近近暴利取締適用品目範圍를 擴大키로되엇다 卽現行暴利取締令에서는 燐寸電球等 生活必需品으로서 品目을 規定치안코關係로 어룰適用品目으로하고저 改正하는것이며 適用品目을 追加할지 或은 暴利取締令適用品目을 商工大臣의 指定으로할지未定이다

各市場打診
週末再惡化崩落

株式 一日千秋의 생각으로 기다린 徐州攻略을앞두고 反落狀勢를 示現하야 東新은百四十四圓臺 鐘紡은 二百四十四圓臺를보이는等 人氣는 急轉惡化하게되엇는데 此邊에서는 一고 오랫동안 悲觀人氣에 갓치엇든市勢가 昨週의奔騰으로 갓갑든 押程度로 그저야할것이 急落狀을보이엇든 利喰과處分物로 反落을보이게되매 暫時는 市勢가바하엿다가 今週에들어 다시 一로서서 回復되기를 期待하기도 하엿다가 騰高를 示現하엿스나 徐州陷落이 어려워서 이低落의程度와 環境의報告 好材出盡으로 보앗음인 情勢를在視할 必要에切迫하게된지 正株側의 實際物이 少다저 셈이나 徐州陷落으로도 長期戰이 나오든同時에 東株減配를비롯하야 諸株의 減配等으로 氣分을 損傷하고 環境情勢도 不透明한 것等 悲材新聞 條件도업지아니하야 市勢는 週末에이르러 急은 未解消라는데 財界人의 惡觀의 根據가잇는터이므로 이러한 情勢가운데서 實態度를 取하기는 困難하야 假令여기서一展가잇다하드래도 市勢는 다시 一低一强一弱의 사이에 끼어一高보지나 新維持가 可能하게될때까지는 本格的展開는 期待할수 [illegible]

期米 無材料時代의特徵 低迷裡膠着不動 五月在米高보고 小波瀾을 그린後의 市勢는다시無材料의 局面이되어 一方으로는 天候를注目하면서 蓬萊米의動向과 仕手關係에 注意하는 中은하나 우으로는 最高價의 壓迫과 政策의壓力이잇서 昇騰도困難하며 알로는 物價高와 消費增大라 大材가 치바처서 無碍한 崩落도도한 不許하야 市勢는 이强弱觀의사이에 끼어 一高一低一强一弱의 浮動商狀을 보히지안할 수박게 업을것으로 一落을 告할수박게 업을것으로 現하는 急落이 잇드라도 旣不知의 慘落은 잇을수업을것이오 再落後에는 이것을 最後突込으로 完全한 底入을 完了할것이 아니냐하는 一部의說도不無하다

生絲 大閑散保合이나 市勢는意外堅强 徐州陷落도 生絲에는 影響이 업고 米國財界의不透明 時局의重壓 思惑人氣의 離散等으로 仕手의活動力이 漸漸萎縮됨에따라 市勢도 氣重狀을不免하고잇는데 閑散에比하면 市勢는 意外堅强하다고 할수도잇스나 新絲限에는 實需側의 實物이上價를 抑制하야 伸力은거의흘것이언다 亦是古絲整理期를 지나 新絲透視가 可能하게될때까지는 本格的展開는 期待할수 [illegible]

綿絲 綿業統制强化로 思惑餘地가殆無 前週末發表된 番手及 太番手의 最高價格도 强制力을 가지게되고 紡績絲內地流用取締規則의 公布와함께 流用防止監督委員會를 設置하야 常務委員及 監視委員을두어 取締를 徹底的으로 하게되엇스므로 業者의 自肅氣分도 强하게되엇스나 如何튼 이모든事情으로 이되여 淸算思惑의 餘地가 업서진것으로 생각할수잇스니 浮動을 全然抑止하고 보매 綿絲市勢는 더욱 離散하고 米棉도 以後 支那輸出을 期待하는 側도 잇스나 支那의 購買力이 本格的回復은 難望이데 徐州陷落은 [illegible]

人絹 依然戾賣的商勢 오랫동안 低迷商狀을 보이든 人絹高를보고 이以上賣할수업다고보아 警戒가되어 反戾商勢로轉하엿다 輸出의 沈衰와大는 賣狙되고잇는現狀이다 [illegible] 아직도戾賣人氣裡에 人纖高로小高나 [illegible]

畢竟崩壞

徐州陷落의 貴方의 策動을 買하고저 週末 徐州陷落의 期待되든 東株減配와 豫想에 反하야 買方의 利喰을 내여 株式의回復은 期待되든 (?) 再反落 [illegible]

前途大波瀾含

今日의 落潮로보아 買方의 頹勢 [illegible]

短期配當落

記載柄은本日부터各其配當落 [illegible]

國債區區

【東京電話同盟】依然 [illegible]

期米 低迷裡 不勢

前場低迷 今朝阪地三十四圓九十二錢인 六丁反落을 據하고 當은 一圓八十二錢인 六丁低 [illegible]

安心賣도亦難

今月以來의 市勢는 麥의凶作 [illegible]

需給은强氣的?

朝鮮米의 殘存米는 七百三十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正米 閑散裡 低合

京城固着 新材料업서 [illegible]

仁川不變 依然定期의低迷

木浦續落 定期의 不動狀

釜山閑況

大邱釘着 新材料無로

群山少戾 奧地는端境期

市場小感

徐州陷落의 期待에 [illegible]

今日의市勢(廿一日) 株式 再轉惡化 慘落

前場崩落 昨日의 續落後 東株의 減配等을비롯하야 諸株의 低下로 人氣는 悲觀에 기울어 [illegible] 徐州陷落으로 [illegible] 東新百四十四圓臺로 滑落하고 [illegible] 鐘紡二百四十四圓臺를 示現하야 [illegible] 十三圓九로 今週週末치고 後場은例休이엇다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 六一九九 六一五五 六三九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一六

仁川米豆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六二二九番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二丁目 仁川本町一丁目 マルタマ取引店

今日財界 廿一日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正租 ◆仁川正租◆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朝取主要取組高◆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取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廿一日)

[illegible]		